

『御定宋史箋』의 편찬 및 체재에 관한 연구

A Study of the Compilation and Format of *Eojeongsongsajeon*

강 순 애 (Kang, Soon Ae)*

◁ 목 차 ▷

- | | |
|--------------------|------------------|
| 1. 서 론 | 3. 『어정송사전』 100권본 |
| 2. 『송사전』 80권본 | 4. 『어정송사전』 150권본 |
| 2.1 발췌, 편집 및 교정자 | 5. 결 론 |
| 2.2 발췌, 편집 및 교정 과정 | <참고문헌> |

< 초 록 >

본 연구는 문헌연구 및 실물조사를 활용하여 『송사전』 80권본과 『어정송사전』 100권본 및 150권본의 편찬과정을 체계적으로 밝혀 서지학분야 문헌 연구에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송사전』 80권본은 『일성록』 및 정조의 어찰에 나타난 기록들과 기존 연구를 조사하여 발췌, 편집 및 교정에 관계한 사람 및 과정에 대해 밝히고, 『어정송사전』 100권본 및 150권본은 『정조실록』, 『홍재전서』 및 문집 등의 기록, 기존 연구 및 현존본을 조사하여 편찬 및 체재에 대해 분석하여 『어정송사전』이 어떠한 편찬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송사전』 80권본의 발췌, 편집 및 교정자는 정조였다. 정조는 영조 46년(1770) 1월 3일에 시작하여 송사의 발췌, 편집 및 교정을 그해 8월 25일에 마쳤다. 본기와 지는 발췌하여 교정을 하였고, 열전은 발췌만 해두었다. 영조 48년(1772)에 홍봉한과 상의하여 발췌본의 교정을 하였고, 서기는 홍낙인, 유럽전은 홍낙신과도 상의하여 진행하였다. 『어정송사전』 100권본은 정조가 편찬한 서례(序例)에 의거하여 서명옹이 총 편집의 책임을 맡아 정조 4년(1780) 10월 10일에 본기 4권, 지 34권, 세가 4권, 열전 56권, 의례 1권, 목록 1권 등 총 100권 40책으로 이루어졌다. 이 책은 본기, 지, 세가, 열전으로 이루어졌다. 『어정송사전』 150권본은 이덕무를 시켜 수정 완성하고 관학제생들에게 선사교대시켜 정조 15년(1791) 의례 1권, 목록 1권, 본기 8권, 지 47권, 세가 2권, 열전 91권의 총 150권 61책으로 완성하였다. 이 완성본이 현재 규장각에 남아 있는 奎1800의 『어정송사전』이다. 본 연구는 서지학, 기록관리학 및 역사학 분야에서 매우 유의미한 결과들을 얻었다. 이 결과는 영·정조 시대의 문헌사를 연구하는 이들에게 기초적인 데이터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要語: 정조, 『송사전』 80권본, 서명옹, 『어정송사전』 100권본, 이덕무, 『어정송사전』 150권본

* 한성대학교 크리에이티브 인문학부 명예교수(h4085@hansung.ac.kr)

투고일: 2020년 8월 20일 최초심사일: 2020년 9월 7일 게재확정일: 2020년 9월 17일
서지학연구, 제83집, 45-74, 2020. <https://doi.org/10.17258/jib.2020..83.45>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ystematically reveal the compilation process of 80 volumes of *Songsajeon* and 100 volumes and 150 volumes of *Eojeongsongsajeon* by utilizing literature research and actual research to present basic data for bibliographic literature research. To this end, 80 volumes of *Songsajeon* examine the records of *Ilseongrok* and Jeongjo's Eochal and the existing research to reveal the people and processes involved in the excerpt, editing, and proofreading. 100 volumes and 150 volumes of *Eojeongsongsajeon* is analyzed for each compilation and format by examining records of *Annals of King Jeongjo*, *Hongjaejeonseo* and literary works, existing research and existing texts, and examines in detail what kind of compilation process the *Eojeongsongsajeon* was complet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excerpt, editing and proofreading of 80 volumes of *Songsajeon* was Jeongjo. Jeongjo began on January 3rd, 46th year of King Yeongjo (1770), and completed the excerpt, editing, and correction of the case on August 25th of that year. Bonki and Ji were excerpted and corrected, and only excerpts were made for Yeoljeon. In the 48th year of King Yeongjo (1772), the excerpt was corrected in consultation with Hong, Bong-han, and Seogi was consulted with Hong, Nak-in and Yurimjeon was also consulted with Hong, Nak-shin. 100 volumes of *Eojeongsongsajeon* are based on the Seolye (序例) compiled by Jeongjo, and the total editorial responsibility was taken by Seo, Myeong-eung, and on October 10, the 4th year of King Jeongjo (1780). It consisted of 100 volumes and 40 books, including Bonki 4, Ji 34, and Sega 4, Yeoljeon 56, Uilye 1, Moglog 1. This book is composed of Bonki, Ji, Sega, and Yeoljeon. 150 volumes of *Eojeongsongsajeon* were revised and completed by Lee, Deok-moo, and completed in the 15th year of King Jeongjo by alternately transcribing the students of the government school. It consisted of 150 volumes and 61 books, including Uilye 1, Moglog 1. Bonki 8, Ji 47, Sega 2, Yeoljeon 91. This completed version is *Eojeongsongsajeon* of 奎1800 that remains in Gyujeonggak.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very meaningful in the fields of bibliography, records management and history. This result is expected to be used as basic data for those who study the history of literature in the Yeong-Jeongjo period.

Key words: King Jeongjo, 80 volumes of *Songsajeon*, Seo, Myeong-eung, Lee, Deok-moo,
150 volumes of *Eojeongsongsajeon*

1. 서론

『어정송사전(御定宋史箋)』은 정조가 국조의 치법(治法)과 정모(政謨)에 대해 송(宋)나라를 본받고자 하였으나 아로도(阿魯圖)와 탈탈(脫脫)의 『송사(宋史)』 496권이 허술하여 준거(準據)가 없고 체례(體例)는 불합리하며 문장의 기술은 번잡해서 정사(正史) 중에서 가장 불품이 없다¹⁾고 판단하고, 왕세자 시절부터 정조 15년(1791)까지 3차에 걸쳐 정비하여 의례(義例) 1권, 목록 1권, 본기(本紀) 8권, 지(志) 47권, 세가(世家) 2권, 열전(列傳) 91권의 총 150권 61책으로 편찬한 역사서이다.

정조는 왕세자 시절에 탈탈의 『송사』를 읽고 산절(刪節)하여 영조 48년(1772)에 『송사전』 80권의 초본을 만들었다.²⁾ 정조가 즉위한 후에는 춘궁의 빈료(賓僚)를 역임한 신하들에게 분담하여 편찬하도록 하고, 다시 사실을 수집하고 의례를 정해 주었다. 정해진 의례에 따르다 보니 규모가 차츰 확대되었고 삭제하고 수정하는 부분도 점점 많아져서 존현각(尊賢閣)에서 편찬하였던 원고(原藁)의 모습은 거의 남지 않게 되었다.³⁾ 정조 4년(1780) 10월 10일에 서명옹(徐命膺) 등이 교정한 『어정송사전』은 본기 4권, 지 34권, 세가 4권, 열전 56권, 의례 1권, 목록 1권 등 도합 100권 40책으로 구성되었다. 정조 8년(1784)에 이덕무(李德懋)에게 수정을 맡겨⁴⁾ 정조 15년(1791)에 수정본이 일단락되었다. 그해 관학제생(館學諸生)에게 전사교대(繕寫校對)시켜 150권 61책의 필사본이 완성되었다.⁵⁾

『송사전』 80권본의 발췌, 편집 및 교정에 대해서는 『일성록(日省錄)』, 『정조어찰첩: 『壬辰睿札(임진예찰)』과 『己未御札(기미어찰)』과 『정종대왕어필간첩(定宗大王御筆簡帖)』에 관련 내용이 실려 있다.⁶⁾ 이와 관련한 기존의 연구에서 『일성록』의 기록을 분석한 연구는 없고, 김덕수(2013)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소장하고 있는 어찰첩의 내용에 의거하여 『송사전』의 편찬 내용을 일차적으로 정리하는

1) 정조, 『홍재전서(弘齋全書)』 제179권 『群書標記』 御定 1 宋史箋.

“脫脫宋史 潦率無據 體裁則乖謬 敘錄則氾雜 在諸史最無可觀.”

2) 李德懋, 『아정유고(雅亭遺稿)』 卷5 『宋史箋編撰議』 割註.

“先是上在春邸 以宋史煩冗 迺於視膳之暇 親於朱墨 而筆削之 釐爲八十卷 名宋史箋.”

李圭景,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제19집 『經史篇』 史籍總說 二十三代史及東國正史辨證說.

“我東則正廟朝在春邸 以宋史煩冗 親以朱墨筆削之 釐爲八十卷 名宋史箋.”

3) 정조, 『홍재전서(弘齋全書)』 제179권 『群書標記』 御定 1 宋史箋.

“御極以後 機務無暇 命曾任賓僚諸臣分管編摩 因復撫事授義 緣義起例 規撫寢廣 裁酌轉多 與賢閣丹鉛之原藁 幾乎面目之無復舊.”

4) 李德懋,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제70권 附錄 上 『先考積城縣監府君年譜』 上.

“甲辰(1784) 公四十四歲 承命改定御定宋史箋 先是 上以脫脫所撰宋史 多有訛誤繁 分命諸臣 發凡起例 刪爲四十 至是 又命公刪潤務從一例 公携之官 撰遺民及遼金蒙古高麗列傳 至若本紀之贊 列傳之論 諸志之文 亦多改正 閱四載始訖.”

5) 정조, 『홍재전서(弘齋全書)』 제179권 『群書標記』 御定 1 宋史箋.

“辛亥 分授館學諸生 繕寫校對 旋藏之祕府 蓋作史至難 刪史亦未易 史箋始止於刪 而今又有作矣 於是乎姑束閣之 不即印行.”

6)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정조어찰첩: 『壬辰睿札』과 『己未御札』』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3).
국립중앙도서관, 『정종대왕어필간첩』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2013).

데 주력하였으며,⁷⁾ 국립중앙도서관의 『정종대왕어필간첩』 해제에는 『송사』의 초록에 대해 일부 기술되어 있지만, 자관 소장의 어찰에 실린 단편적인 내용만 다루었다.⁸⁾

『어정송사전』 100권본 및 150권본에 대해서 이성규(1980)는 『송사전』의 편찬배경과 그 특색을 밝혀서 조선학인의 중국사에 대한 인식과 연구적인 태도 및 그 수준을 제시하려고 하였고,⁹⁾ 김문식(1999)은 『송사전』의 편찬과정, 체제, 이덕무가 편찬한 부분과 이덕무의 역사인식을 살펴서 그 시대의 송대사 인식을 검토하고 그러한 인식이 가지는 시대적 의미를 파악하려고 하였다.¹⁰⁾ 홍승태(2014)는 『송사전』의 『유림전』과 『오현전』을 통해 조선왕조 정조시대에 송대 유학의 계통성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고찰하였다.¹¹⁾

『송사전』 80권본, 『어정송사전』 100권본 및 『어정송사전』 150권본 중에 실물이 남아 있는 것은 현재 규장각이 소장하고 있는 奎1800-v.1-61의 150권본 필사본뿐이다. 따라서 『송사전』 80권본과 『어정송사전』 100권본은 실물이 남아 있지 않아서 기록과 실물의 대조를 완전하게 할 수 없는 형편이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 및 실물조사를 활용하여 『송사전』 80권본과 『어정송사전』 100권본 및 150권본의 편찬과정을 체계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일성록』 및 정조의 어찰에 나타난 기록들과 기존 연구를 조사하여 『송사전』 80권본의 발췌, 편집 및 교정에 대해 밝히고, 『정조실록』, 『홍재전서』 및 문집 등의 기록, 기존 연구 및 현존본을 조사하여 『어정송사전』 100권본 및 150권본의 편찬 및 체제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들의 관련 기록을 연계하여 『어정송사전』이 어떠한 편찬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이 연구는 향후 서지학, 기록관리학, 역사학에 가장 기본적인 연구 성과로 활용될 것이다.

2. 『송사전』 80권본

『일성록』과 『정조어찰첩: 『임진예찰』과 『기미어찰』』(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3)과 『정종대왕어필간첩』(서울: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2013)에는 『송사전』의 발췌, 편집 및 교정의 기록이 실려 있는데, 이들 기록에 근거해 발췌, 편집 및 교정자와 발췌, 편집 및 교정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7) 김덕수, “『정조어찰첩』을 통해서 본 정조의 서적 편찬 활동,” 『정조어찰첩: 『壬辰睿札』과 『己未御札』』(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3), 18-34.
8) 국립중앙도서관, “해제,” 『정종대왕어필간첩』(서울: 국립중앙도서관도서관 도서관연구소, 2013), 39-50.
9) 李成珪, “『宋史笏』의 編纂背景과 그 特色: 조선학인의 중국사편찬에 관한 연구,” 『진단학보』 49(1980), 85-114.
10) 金文植, “『宋史笏』에 나타난 李德懋의 역사인식,” 『동아시아문화연구』 33(1999), 29-51.
11) 홍승태, “『宋史笏』 『儒林傳』의 宋儒系統論,” 『한국사학사학보』 30(2014), 253-283.

2.1 발췌, 편집 및 교정자

정조(正祖, 1752~1800, 재위 1776~1800)¹²⁾는 『송사전』의 발췌, 편집 및 교정자이다. 교정을 도운 사람은 홍봉한(洪鳳漢, 1713~1778)을 중심으로 홍낙인(洪樂仁, 1729~1777), 홍낙신(洪樂信, 1739~1796) 등이다.

정조는 그의 저서 『홍재전서(弘齋全書)』 권 167 『일득록(日得錄)』 7 정사(政事) 2의 내용에서 송나라를 숭상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이 이르기를, “우리 왕조가 나라를 세운 규모는 크게 송(宋) 나라와 비슷하여 오로지 유술(儒術)을 숭상하였다. 그래서 신라나 고려에 비교하였을 때 병력(兵力)의 강하고 약함이나 재용(財用)의 넉넉하고 부족함을 같이 놓고 논할 수 없다. 그러나 밖으로는 변경 지역의 근심이 없고 안으로는 고집이 세어 굽히지 않는 무리가 끊어져 400년의 예악(禮樂)과 문물(文物)이 중화(中華)의 성대함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것은 유술로 인한 것이다. 명의(名義)니 풍절(風節)이니 하는 것이 빈말 같다고 하더라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유지하고 지탱시킨 데에는 병력이나 재용으로 미칠 수 없는 점이 있다. 근래에 보면, 조정 신하들은 매번 외적을 막는 것이 소홀하고 경비(經費)가 어려워지는 것을 가지고 근심하는데, 내가 우려하는 바는 여기에 있지 않다. 실로 정학(正學)이 날로 미미해져 선비의 추향(趨向)이 날로 낮아지는 데 있을 뿐이다.” 라고 하였다.¹³⁾

위의 글을 보면, 정조는 조선의 왕조 규모가 중국의 송과 비슷하고, 유술을 숭상하여 예악과 문물이 성대하다고 여겼다. 국가의 힘은 병력이나 재용보다 명의나 풍절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정조는 정학이 날로 미미해져 선비의 추향이 날로 낮아지는 것을 걱정하였다.

이러한 연유로 정조는 동궁시절부터 “송의 기풍과 인물은 우리나라와 흡사해서, 거울로 삼기에 다른 역사서보다 『송사』가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하였다. 이 때문에 정사를 산정해서 『송사전』을 만들었고, 편년체 사서들을 요약해서 『송사촬요(宋史撮要)』를 편찬한 것이다.”라고 하였다.¹⁴⁾

『일성록』에 의하면, 정조는 영조 46년(1770) 1월 3일에 시작하여 『송사』를 읽으면서 산절했는데, 송사의 발췌, 편집 및 교정을 8월 25일에 마쳤다.

정조가 홍봉한에게 보낸 어찰에는 영조 48년(1772) 1월 2일부터 12월 27일까지의 내용이 실려 있다. 홍봉한은 영조 48년(1772)에 영조 46년(1770)에 작업한 『송사전』의 초본을 대상으로 홍낙인,

12) 정조(正祖, 1752~1800, 재위 1776~1800)의 행적에 대해서는 강순애, “정조가 홍낙인에게 보낸 어찰에 나타난 어정서 편찬·간행 및 반사 내용과 관련 기록 연구,” 『서지학연구』 77(2019. 3), 105-106에서 간략하게 다루었다.

13) 정조, 『홍재전서(弘齋全書)』 권 167 『일득錄』 7 政事 2.

“我朝立國規模 大近有宋 專尚儒術 故比諸新羅高麗 兵力強弱 財用饒匱 不可同日而論 然外無疆場之憂 內絕偏強之徒 四百年禮樂文物 無愧中華之盛者 儒術有以致也 名義風節云者 雖似空言 維持撐拄於不知不覺之中者 有非兵力財用之所可及也 近見朝臣每以禦侮之疎經費之艱爲憂 而予所憂者 不在於此 實在於正學日微 士趨日卑耳.”

14) 정조, 『홍재전서(弘齋全書)』 권 179 『羣書標記』 御定 1 『新訂資治通鑑綱目續編』 27권.

“... 予在春邸時 積費勘校之工者也 予嘗謂有宋之風氣人物 與我朝相近 其爲鑑戒 比他史尤切 故刪正史而有史箋焉 節略編年而有撮要焉 ...”

홍낙신 등과 본격적으로 증산하고 교정하는 작업에 참여하였다.

홍봉한은 본관은 풍산(豊山), 자는 익여(翼汝), 호는 익익재(翼翼齋)이다. 아버지는 홍현보(洪鉉輔)이고 사도세자(思悼世子)의 장인이다. 영조 11년(1735) 생원이 되고, 음보(蔭補)로 참봉에 등용되어 세자익위사세마로 있을 때인 영조 19년(1743) 11월 13일에 딸이 세자빈[惠慶宮洪氏]으로 간택되었다.¹⁵⁾ 이듬해 세마(洗馬)로서 정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해 사관(史官)이 되었다. 이어 승정원가주서, 문학, 광주부윤(廣州府尹), 승지를 거쳤다. 영조 25년(1749) 1월 27일 사도세자의 대리청정이 시작되었다.¹⁶⁾ 영조 26년 1월 5일에 어영대장에 제수되었고,¹⁷⁾ 이어 호조참판, 예조판서, 이조판서, 병조판서, 총융사의 직책을 거쳤다. 영조 35년(1759) 2월 12일에 세손사가 되었고,¹⁸⁾ 균역청당상과 선혜청당상을 거쳤다. 영조 37년(1761) 3월 28일 우의정이 되었고,¹⁹⁾ 좌의정을 거쳐 영의정이 되었다. 영조 38년(1762) 윤 5월 13일 사도세자가 폐서인되었고,²⁰⁾ 윤 5월 21일에 홍서하였다. 호를 회복하고 사도세자라 하였다.²¹⁾ 홍봉한은 이 사건을 최종 처리하면서 영조 38년(1762) 8월 26일 영조에게 “그 본심은 공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것”이라는 요지의 차자(笱子)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영조는 “5월 13일의 하교와 경의 차자 및 비답을 사각(史閣)에 간직하여 소인들의 참언(讒言)을 막고 뒷세상에 의리(義理)를 엄하게 하겠다.”라고 하였다.²²⁾ 이 기록에 의하면, 홍봉한은 영조의 뜻을 따라 차자를 제출한 것이며 결국 사건의 수습은 영조와 홍봉한이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 홍봉한은 영조의 정책에 순응해 많은 업적을 남겼고, 영조 44년(1768) 다시 영의정에 올랐고, 영조 46년(1770) 3월 봉조하로 치사하였다.

홍봉한은 사도세자의 죽음의 진말을 상세히 적은 『수의편(垂義篇)』을 편찬해 반대파를 배격하는 구실로 이용하였다. 정조 연간에는 그의 행적에 대한 시비가 정파 대립의 중요한 주제가 되었다. 그래서 그를 공격하는가 또는 두둔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벽파(僻派)와 시파(時派)를 구분하기도

15) 『영조실록(英祖實錄)』 58권, 영조 19년 11월 13일(임진) 1번째 기사.
“壬辰 行世子嬪三揀之禮 洗馬洪鳳漢之女也.”

16) 『영조실록(英祖實錄)』 69권, 영조 25년 1월 27일(병자) 1번째 기사.
“丙子 以王世子代理 告太廟 頒教八路.”

17) 『영조실록(英祖實錄)』 71권, 영조 26년 1월 5일(기유) 4번째 기사.
“命遞御營大將朴文秀 以洪鳳漢代之.”

18) 『영조실록(英祖實錄)』 93권, 영조 35년 2월 12일(계해) 3번째 기사.
“上御恭默閣親政 洪鳳漢爲世孫師 趙榮國爲世孫傅 金尙翼爲大司憲.”

19) 『영조실록(英祖實錄)』 97권, 영조 37년 3월 28일(정묘) 3번째 기사.
“... 以洪鳳漢拜相 仍兼扈衛大將藥院都提調 ...”

20) 『영조실록(英祖實錄)』 99권, 영조 38년 윤5월 13일(을해) 2번째 기사.
“上幸昌德宮 廢世子爲庶人 自內嚴囚 ...”

21) 『영조실록(英祖實錄)』 99권, 영조 38년 윤5월 21일(계미) 2번째 기사.
“思悼世子薨逝 ... 只復其號 而兼諡以名曰思悼世子 ...”

22) 『영조실록(英祖實錄)』 100권, 영조 38년 8월 26일(병진) 2번째 기사.
“左議政洪鳳漢 進袖笱 ... 究其本心 公耳國耳... 將十三日下教及卿笱與批答 莊于史閣 杜宵小之讒 嚴義理於來世.”

하였다. 영조를 도와 조선 후기 문예부흥에 많은 업적을 남겼다.²³⁾ 또한 외손이자 후에 정조(正祖)가 되는 이산(李祘)의 예학(睿學)을 위해 지은 강학 자료인 『정사휘감(正史彙鑑)』을 편찬하였다. 이 책은 『강감회찬(綱鑑會纂)』,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자치통감(資治通鑑)』, 『속자치통감(續資治通鑑)』, 『명사강목(明史綱目)』 등 5종의 저술에서 당우(唐虞)로부터 명나라에 이르기까지 역대 왕들의 전고(典故)를 치밀하게 살폈다. 그리고 34조목의 주제 아래, 모범으로 삼을 일인 ‘법조(法條)’ 557장과 경계로 삼을 일인 ‘계조(戒條)’ 312장을 분류하여 편집하고, 이어서 ‘근안(謹按)’으로 시작하여 ‘염재염재(念哉念哉)’로 끝나는 자신의 견해를 덧붙였다. 특히, ‘근안’에서는 앞에서 찬집한 전고들의 주제에 대해 개괄적으로 정리하고 조선의 선대 임금과 인물들의 전고를 간략히 서술하여, 다시 주제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왕세손에게 제왕으로서의 역할과 자세를 거듭 당부하는 형식을 갖추었다.²⁴⁾ 그는 봉조하로 물러난 이후에도 세손을 도왔으며, 『어정송사전』의 교정에 꼼꼼하게 관여하였다. 정조 2년(1778) 12월 4일에 운명하였다.²⁵⁾

홍낙인은 본관은 풍산(豊山), 자는 대유(大維), 호는 안와(安窩)이고, 영의정 홍봉한(洪鳳漢)의 장자이다. 영조 37년(1761) 3월 12일 경시에 수석으로 급제하였고,²⁶⁾ 부수찬, 부교리, 문학, 승지 등을 거쳐 영조 43년(1767) 4월 14일 대사성이 되었다.²⁷⁾ 형조, 이조, 호조, 병조의 참관을 거쳐 영조 45년(1769) 1월 23일 대사헌이 되었다.²⁸⁾ 이조참판, 부교리, 도승지를 거쳐 영조 51년(1775) 6월 20일에 이조참판이 되었다.²⁹⁾ 정조 1년(1777) 6월 19일에 세상을 떠났다. 정조가 외숙 중에 가장 가깝게 여긴 것은 심술이 사곡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³⁰⁾ 사도세자가 죽은 후 홍봉한과 함께 정조를 잘 보필하였으며 『어정송사전』의 서기(序記)를 지었다.

홍낙신은 본관은 풍산(豊山), 자는 중순(仲諄)이고 홍봉한의 둘째 아들이다. 영조 38년(1762) 사도세자가 죽게 되자 왕세손을 보필하는 설서(說書)의 관직을 맡았다. 영조 42년(1766) 별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이듬해 예문관검열 권점에 수망(首望: 일등 후보자)으로 뽑혔고, 이어 정언(正言)에

23) Daum 백과. 한국민족문화백과대사전, 홍봉한(洪鳳漢), [검색일자 2020. 7. 20.]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14XXE0064114>>

24) 구순옥, 신창호, “제왕(帝王) 교육서로서 정사휘감(正史彙鑑)의 편찬과 구성상의 특징,” 『교육사상연구』 30권 3호(2016), 32.

25) 『정조실록(正祖實錄)』 6권, 정조 2년(1778) 12월 4일(경신) 1번째 기사.
“庚申 奉朝賀洪鳳漢卒.”

26) 『영조실록(英祖實錄)』 97권, 영조 37년 3월 12일(신해) 1번째 기사.
“辛亥 上御景賢堂試官入侍科次 鄉則陸祖洙居首 京則洪樂仁居首 并賜第.”

27) 『영조실록(英祖實錄)』 108권, 영조 43년 4월 14일(정미) 3번째 기사.
“以鄭弘淳爲戶曹判書 尹養厚爲副校理 洪樂仁爲大司成 鄭象仁爲兼司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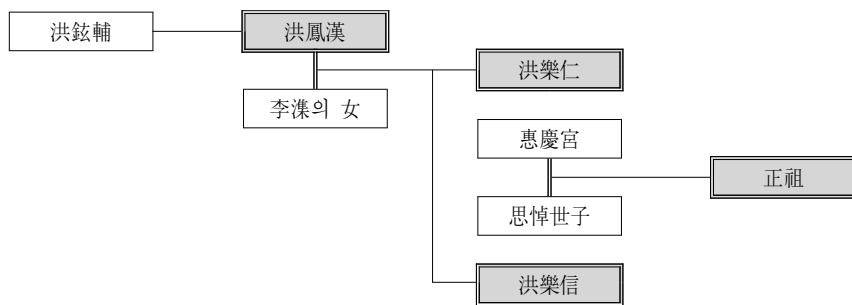
28) 『영조실록(英祖實錄)』 112권, 영조 45년 1월 23일(정미) 1번째 기사.
“丁未以…洪樂仁爲大司憲.”

29) 『영조실록(英祖實錄)』 124권, 영조 51년 6월 20일(병신) 1번째 기사.
“丙申 上親臨都政 以洪樂仁爲吏曹參判.”

30) 『정조실록(正祖實錄)』 3권, 정조 1년 6월 19일(계축) 1번째 기사.
“癸丑 前參判洪樂仁死 教曰 予於諸舅中 最嘉此人者 以其心術之不邪曲 今焉已矣.”

제수되었다가 그 후 부교리·검문학 등을 거쳐 과천어사(果川御史)로 파견되기도 하였다.³¹⁾ 영조 50년(1774) 12월 6일 승지가 되었고,³²⁾ 정조 17년(1793) 12월 27일에는 특별히 가자하여 동지돈녕부사의 자리를 가설하여 제수하였다.³³⁾ 정조 19년(1795) 8월 10일 지돈녕부사에 제수되었다가³⁴⁾ 정조 20년(1796) 6월에 죽었다. 그의 성복일(成服日)에 정조가 치제문을 지었다.³⁵⁾ 사도세자가 죽은 후 홍봉한, 홍낙인과 함께 정조를 잘 보필하였으며 『어정송사전』의 유립전을 교정하였다.

『송사전』 80권본의 발췌, 편집 및 교정에 관계한 사람들을 <그림 1>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송사전』 80권본의 발췌, 편집 및 교정자

2.2 발췌, 편집 및 교정 과정

2.2.1 『일성록』의 기록

정조가 춘궁(春宮)에서 『송사』를 찬수(纂修)하기로 마음을 먹고 초본(抄本)의 편집에 착수한 것은 『일성록』에 의하면, 영조 46년(1770) 1월 3일에 시작하여 그해 8월 25일에 마쳤다. 『송사』의 발췌, 편집 및 교정에 관한 『일성록』 기록은 참조를 위해 [부록: 『송사』의 발췌, 편집, 교정에 관한 『일성록』 영조 46년(1770) 1월 3일~8월 25일의 기록]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정조는 송사를 읽으면서 산절했는데, 송사의 발췌, 편집 및 교정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31) Daum 백과, 한국민족문화백과대사전, 홍낙신(洪樂信).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14XXE0064003>>. [접속일 2020.7.20.]

32) 『영조실록(英祖實錄)』 123권, 영조 50년 12월 6일(을유) 1번째 기사.
 “乙酉 洪樂信擢除承旨.”

33) 『정조실록(正祖實錄)』 38권, 정조 17년 12월 27일(병술) 3번째 기사.
 “致祭于鰲興府院君 金漢耆 教曰 … 前參議金漢老 前承旨洪樂信洪樂任特爲加資 金漢老副摠管除授 洪樂信洪樂任同敦寧加設除授 ….”

34) 『정조실록(正祖實錄)』 43권, 정조 19년 8월 10일(무자) 4번째 기사.
 “教曰 慈殿當有承候之人 登科且近三十年 前副摠管金漢老知中樞府事除授 又特授洪樂信爲知敦寧府事.”

35) 정조, 『홍재전서(弘齋全書)』 24권 祭文 6 知敦寧洪樂信成服日致祭文.

첫째, 『송사』 본기(本紀)의 작업은 영조 46년(1770) 1월 3일부터 1월 14일까지 12일이 걸렸고, 발췌본의 교정은 3월 22일부터 3월 25일까지 4일 동안 이루어졌다.

둘째, 『송사』 지(志)는 영조 46년(1770) 1월 15일부터 3월 13일까지 발췌되었고, 부분적으로 교정과 편집이 이루어졌다. 『송사』 지의 발췌본에 대한 전체적인 교정은 영조 46년(1770) 3월 26일~30일(5일), 4월 1일~29일(29일), 5월 1일~5일(5일) 39일에 걸쳐 이루어졌다.

① 천문지 1월 15일~18일(4일), 오행지 1월 19일~20일(2일), 율력지 1월 21일~23일(3일), 지리지 1월 24일~26일(3일), 하거지 1월 27일~28일(2일)로 천문지, 오행지, 율력지, 지리지, 하거지는 14일간 발췌가 이루어졌다.

② 예지는 예지 길례 1월 29일~2월 2일(3일), 예지 가례 2월 3일(1일), 예지 빈례 2월 4일(1일), 예지 빈례와 군례 2월 5일(1일), 예지 흉례 2월 6일(1일)까지 7일간 발췌되었고, 예지의 발췌본은 2월 7일(1일)에 합쳐졌으며, 이의 교정은 2월 9일~10일까지 2일 동안 이루어졌다.

③ 악지는 2월 11일~2월 16일에 걸쳐 6일간 발췌되었고, 발췌된 악지를 2월 17일(1일)에 증산(增刪)하였으며, 편마(編摩)는 2월 18일(1일)에 이루어졌다.

④ 의위지 2월 19일(1일), 여복지 2월 20일, 2월 22일(2일), 선거지 2월 24일~25일(2일), 직관지 2월 26일~29일(4일), 식화지 2월 30일~3월 3일(4일)로 의위지, 여복지, 선거지, 직관지, 식화지는 13일간 발췌가 이루어졌다.

⑤ 병지는 3월 4일, 3월 6일, 3월 7일, 3월 9일 4일간 발췌되었고, 3월 10일(1일)에 발췌본이 편집되었다.

⑥ 형법지는 3월 11일(1일), 예문지는 3월 12일~3월 13일(2일)로 형법지와 예문지는 3일간 발췌되었다.

⑦ 『송사』 지인 천문지, 오행지, 율력지, 지리지, 하거지, 예지, 악지, 의위지, 여복지, 선거지, 직관지, 식화지, 병지, 형법지, 예문지 15종의 발췌본에 대한 전체적인 교정은 영조 46년(1770) 3월 26일~30일(5일), 4월 1일~29일(29일), 5월 1일~5일(5일)로 39일에 걸쳐 이루어졌다.

셋째, 『송사』의 열전은 영조 46년(1770) 3월 15일~3월 21일, 5월 6일~8월 25일까지 발췌되었다.

① 후비전 3월 15일~3월 16일, 종실열전 3월 17일~3월 20일, 공주열전이 3월 21일에 발췌되었다. 이들 열전에서 정확히 몇 명을 발췌했는지 알 수 없다.

② 범질 등 10전(傳) 영조 46년(1770) 5월 6일(1일), 한영근 등 10전 5월 7일(1일), 절덕의 등 13전 5월 8일(1일), 곽승 등 8전 5월 9일(1일), 오정조 등 7전 5월 10일(1일), 장미 등 19전 5월 11일(1일), 이경 등 27전 5월 12일(1일), 장소 등 10전 5월 13일(1일), 이방 등 12전 5월 14일(1일), 장광 등 13전 5월 15일(1일), 도곡 등 23전 5월 17일(1일), 마영종 등 21전 5월 18일(1일), 이진경 등 25전 5월 19일(1일), 유복 등 27전 5월 20일(1일), 장감 등 20전 5월 21일(1일), 왕계충 등 26전 5월 22일(1일), 여단 등 6전 5월 23일(1일), 왕흠약 등 5전 5월 24일(1일), 진집중 등 9전 5월 25일(1일), 양려 등 15전 5월 28일(1일), 고경 등 25전 5월 29일(1일)이다. 영조 46년(1770) 5월에는 21일간

331명의 열전이 발췌되었다.

③ 전석 등 14전 윤5월 1일(1일), 윤수 등 16전 윤5월 2일(1일), 공도보 등 16전 윤5월 3일(1일), 적비 등 31전 윤5월 4일(1일), 변숙 등 31전 윤5월 5일(1일), 장온지 등 25전 윤5월 6일(1일), 양억 등 22전 윤5월 7일(1일), 상관정 등 19전 윤5월 8일(1일), 이적 등 10전 윤5월 9일(1일), 한기 등 7전 윤5월 10일(1일), 범중엄 등 6전 윤5월 11일(1일), 포증 등 6전 윤5월 12일(1일), 장방평 등 8전 윤5월 13일(1일), 채양 등 16전 윤5월 14일(1일), 하담 등 22전 윤5월 15일(1일), 석보 등 9전 윤5월 16일(1일), 경태 등 19전 윤5월 17일(1일), 이청신 등 20전 윤5월 19일(1일), 임전 등 38전 윤5월 20일(1일), 등원발 등 28전 윤5월 21일(1일), 서희 등 9전 윤5월 22일(1일), 사마광 등 3전 윤5월 23일(1일), 소식 등 2전 윤5월 24일(1일), 여대방 등 7전 윤5월 25일(1일), 양도 등 12전 윤5월 26일(1일), 손각 등 13전 윤5월 27일(1일), 진차승 등 28전 윤5월 28일(1일), 부집 등 24전과 묘수 등 30전 윤5월 29일(1일)이다. 영조 46년(1770) 윤5월에는 28일간 491명의 열전이 발췌되었다.

④ 당각 등 24전 6월 1일(1일), 심수 등 29전 6월 2일(1일), 유증 등 22전 6월 3일(1일), 이강 1전 6월 4일(1일), 종택 등 3전 6월 5일(1일), 주승비 등 12전 6월 7일(1일), 한세충 등 2전 6월 9일(1일), 유기 등 7전 6월 10일(1일), 왕덕 등 13전 6월 11일(1일), 왕우직 등 14전 6월 12일(1일), 주탁 등 13전 6월 13일(1일), 장구성 등 10전 6월 14일(1일), 상동 등 16전 6월 15일(1일), 위부민 등 15전 6월 16일(1일), 하주 등 18전 6월 17일(1일), 장도 등 9전 6월 18일(1일), 진강백 등 14전 6월 19일(1일), 유공 등 14전 6월 20일(1일), 주집고 등 15전 6월 21일(1일), 이형 등 13전 6월 22일(1일), 조여우 등 9전 6월 23일(1일), 호평 등 20전 6월 24일(1일), 서의 등 13전 6월 25일(1일), 정각 등 14전 6월 26일(1일), 신기질 등 12전 6월 27일(1일), 조방 등 14전 6월 28일(1일), 이충면 등 9전 6월 29일(1일), 두범 등 8전 6월 30일(1)이다. 영조 46년(1770) 6월에는 28일간 363명의 열전이 발췌되었다.

⑤ 고정자 등 9전 7월 1일(1일), 탕숙 등 11전 7월 3일(1일), 조여담 등 13전 7월 4일(1일), 부백성 등 18전 7월 5일(1일), 교행간 등 12전 7월 6일(1일), 선진 등 30전 7월 7일(1일), 양동 등 20전 7월 8일(1일), 오영 등 20전 7월 9일(1일), 유응룡 등 23전 7월 10일(1일), 주돈이 등 15전 7월 13일(1일), 주희 등 8전 7월 14일(1일), 섭송의 등 28전 7월 15일(1일), 소백은 등 19전 7월 16일(1일), 범중엄 등 6전 7월 17일(1일), 정형 등 13전 7월 19일(1일), 송백 등 17전 7월 22일(1일), 진충 등 13전 7월 23일(1일), 목수 등 23전 7월 24일(1일), [황정견] 등 29전 7월 25일(1일), 강보린 등 27전 7월 26일(1일), 증해 등 32전 7월 27일(1일), 진원계 등 23전과 고민경 등 62전 7월 29일(1일)이다. 영조 46년(1770) 7월에는 22일간 471명의 열전이 발췌되었다.

⑥ 조시상 등 28전 8월 1일(1일), 이린 등 70전 8월 2일(1일), 왕초 등 31전 8월 3일(1일), 유정식 등 43전 8월 4일(1일), 조수기 등 35전 8월 5일(1일), 두심기 등 20전 8월 6일(1일), 맹충후 등 22전 8월 7일(1일), 환자 양수진 등 28전 8월 8일(1일), 환자 소성장 등 19전 8월 11일(1일), 간신 채확 등 8전 8월 12일(1일), 간신 황잠선 등 7전 8월 13일(1일), 반신 장방창 등 6전 8월 16일(1일), 남당이

씨와 서촉맹씨 2전 8월 17일(1일), 오월전씨와 남한유씨 2전 8월 18일(1일), 북한유씨 등 5전 8월 19일(1일), 주삼신 등 4전³⁶⁾ 8월 20일(1일), 고려 등 3전 8월 21일(1일), 점성 등 18전 8월 22일(1일), 유구국 등 6전 8월 23일(1일), 서남계동제만 등 5전 8월 24일(1일), 무수주 등 10전 8월 25일(1일)이다. 영조 46년(1770) 8월에는 21일간 372명의 열전이 발췌되었다.

⑦ 『송사』의 열전(列傳)은 영조 46년(1770) 3월 15일~3월 21일, 5월 6일~8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발췌되었다. 3월 15일~3월 21일까지의 후비전, 종실열전, 공주열전에서는 정확히 몇 명을 발췌했는지 알 수 없다. 5월 6일~8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5월에는 21일간 331명의 열전, 윤5월에는 28일간 491명의 열전, 6월에는 28일간 363명의 열전, 7월에는 22일간 471명의 열전, 8월에는 21일간 372명의 열전으로 총 121일간 2,028명의 열전이 발췌되었다.

2.2.2 정조가 홍봉한에게 보낸 어찰의 기록

『정조어찰첩: 『임진예찰』과 『기미어찰』』(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3, 이하 한중연본이라 칭함)과 『정중대왕어필간첩』(서울: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2013, 이하 국중본이라 칭함)에는 정조가 홍봉한에게 보낸 어찰이 영조 48년(1772) 1월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실려 있는데 영조 46년(1770)에 작업한 『송사전』의 초본을 대상으로 영조 48년(1772)에 홍봉한을 중심으로 홍낙인, 홍낙신 등과 본격적으로 증산하고 교정하는 내용을 부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위의 『일성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조는 『송사』에서 본기와 지는 발췌하여 교정을 하였고, 열전은 발췌만 해두었다. 정조는 이 초본을 다시 교정하기 위해 홍봉한과 자세히 상의하였다. 서기(序記)는 홍낙인, 유림전은 홍낙신과도 상의하여 진행하였다. 이들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범례에 관해서는 1월 12일의 어찰(한중연본)에 의하면, “발췌본 송사를 읽어보신 뒤 필삭하여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범례는 한결같이 별지에 아뢴 내용에 의거하되, 번잡한 부분은 산삭하고, 소략한 부분은 증보함으로써 사서의 완전한 형식을 갖추게 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³⁷⁾ 이는 정조가 홍봉한에게 발췌본 송사를 읽어보고 필삭을 부탁한 것임을 알 수 있고, 범례는 별지의 내용에 의거하여 산삭과 증보를 해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인데 별지가 남아 있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가 없다.

둘째, 본기의 교정에 대해 몇 가지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월 21일의 어찰(한중연본)에 의하면, “보내주신 송사초를 자세히 살펴보니 다행스럽게도 증보하거나 산삭한 부분이 과연 좋았습니다. 본기 2권을 삼가 보내드립니다. 이후에도 차례대로 봉정할

36) 후주(後周)의 세 신하인 한통(韓通), 이균(李筠), 이중진(李重進)의 열전을 통칭하여 주삼신 열전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에 하국열전(夏國列傳)을 포함하여 4전이라고 한 것이다.

37) 정조, “영조 48년 1월 12일 어찰,” 『정조어찰첩』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3), 78-79.

“... 抄出宋史 下覽後 筆削入送 伏望伏望 凡例一做別紙所陳 繁者刪之 略者增之 以全史記之體 如何如何 ...”

계획입니다.”라고 하였다.³⁸⁾ 이는 정조가 홍봉한에게서 증보하거나 산삭한 부분을 만족스러워하면서 본기 2권을 홍봉한에게 보낸 것임을 알 수 있다.

4월 15일의 어찰(한중연본)에 의하면, “본기 가운데 고종(高宗), 효종(孝宗), 광종(光宗) 3권을 써서 보내드립니다. 찬은 아직 완성하지 못했으니 마땅히 추후 써서 보낼 계획입니다. 이밖에 열전과 지도 가려 뽑은 뒤 차례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라고 하였다.³⁹⁾ 정조는 본기 중 고종, 효종, 광종 3권을 홍봉한에게 보내고 찬은 완성하지 못해서 추후 써 보낼 계획을 밝히고 있다.

4월 21일의 어찰(한중연본)에 의하면, “어제 송사초를 잘 받았습시다. 영종(寧宗)부터 제병(帝昺)까지의 본기를 다시 이렇게 보내드리니 예전처럼 교정하여 보내주시길 바랍니다.”라고 하였고,⁴⁰⁾ 4월 27일의 어찰(한중연본)에 의하면, “며칠 전 보내드린 본기는 얼마나 교정을 보셨는지요?”라고 하였다.⁴¹⁾ 이들 기록은 정조가 홍봉한에게 영종, 이종(理宗), 도종(道宗), 공제(恭帝), 단종(端宗), 말제(末帝: 帝昺)까지의 본기를 보내서 교정을 부탁하고 7일 후에 본기의 교정을 보았는지 묻는 내용이다.

셋째, 송사 열전의 양이 많아서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자세하게 알 수 없다. 다만 어찰에 제시된 몇 가지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월 28일의 어찰(한중연본)에 의하면, “송사초는 보내주신 대로 잘 받았습시다. 열전 가운데 먼저 가려 뽑은 것이 3책인데 다시 이렇게 봉정합니다. 다만 책을 보면 눈병에 방해가 될 테니 반드시 착오가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천천히 교정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 가려 뽑은 충의열전(忠義列傳), 효의열전(孝義列傳), 열녀열전(烈女列傳) 중에는 마땅히 뽑아버려야 하는데 뽑아버리지 않은 것도 있고, 뽑아버리면 안되는데 뽑아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면밀히 살피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지요. 본전의 경우는 산삭하는 과정에서 앞뒤 문맥이 연결되지 않는 곳도 있는 듯합니다.”라고 하였다.⁴²⁾ 정조가 홍봉한에게 열전 발췌본 충의열전, 효의열전, 열녀열전의 면밀한 교정을 부탁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5월의 어찰(한중연본)에 의하면, “보내주신 3종의 열전을 잘 받았으나 때마침 경황이 없어 아직 상세히 열람하지 못했습니다. 마땅히 후일의 인편을 통해 제 어리석은 견해를 대략 아뢰겠습니다. 탁행(卓行), 순리(循吏), 영행(佞倖), 반신(叛臣) 등 4종의 열전을 다시 이렇게 써서 보내드립니다.

38) 정조, “영조 48년 3월 21일 어찰,” 『정조어찰첩』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3), 108-109.

“…下示史抄詳細奉覽 增刪果好 伏幸伏幸 本紀二卷謹呈 而此後鱗次封呈伏計…”

39) 정조, “영조 48년 4월 15일 어찰,” 『정조어찰첩』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3), 114-115.

“…本紀高孝光三卷書呈 而贊則姑不製出 當追後書送 伏計耳 此外列傳及志抄 亦當鱗次伏呈矣…”

40) 정조, “영조 48년 4월 21일 어찰,” 『정조어찰첩』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3), 116-117.

“…昨日宋史抄謹領 而寧宗至帝昺紀 更此伏呈 如前斤正入送 伏望伏望…”

41) 정조, “영조 48년 4월 27일 어찰,” 『정조어찰첩』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3), 118-119.

“…日前本紀 幾許釐改耶?…”

42) 정조, “영조 48년 4월 28일 어찰,” 『정조어찰첩』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3), 120-121.

“…史抄依受 而列傳中先抄者三冊 復此封呈 但恐看書有妨於眼患 必俟差隙 徐徐刪正… 所抄忠孝烈女列傳 有當拔而不拔者 此則不可不細考處也 至於本傳 刪削之際 文子亦似有不承接處矣…”

차례대로 가려 뽑아 보내드리며 너무 번거롭게 떠들어대니 송구스럽고 개탄스럽습니다.”라고 하였다.⁴³⁾ 이 내용은 정조가 홍봉한으로부터 3종의 열전을 받았으나 경황이 없어 보지 못하였고, 홍봉한에게 써 보낸 탁행, 순리, 영행, 반신 등 4종의 열전에 대한 교정을 부탁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5월 19일의 어찰(한중연본)에 의하면, “환자열전과 외척열전을 가려 뽑았으므로 이렇게 써서 보내드립니다. 굳이 급하게 교정할 필요는 없으니 천천히 살펴보신 뒤 차례대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라고 하였다.⁴⁴⁾ 이는 정조가 환자열전과 외척열전의 발췌본을 홍봉한에게 보내면서 급하게 교정하지 말고 천천히 살펴본 뒤에 보내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다.

6월 3일 어찰(국중본)에 의하면, “일전에 보내주신 세 가지 전에 대해 증산한 것을 상세하게 살펴 보니 그 더하고 뺀 것이 매우 정밀하고 타당하여 다시 의논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후비열전(后妃列傳)에서 송 광종(光宗)의 비(妃) 이후(李后)의 경우 정계하여 교훈을 얻자는 의미에서 초록한 것인데, 수정한 책에서는 빼셨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깊이 헤아려보신 것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다시 이 편지로 질정하여 취사선택을 정하고자 삼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래 계속 초록하여, 종실(宗室)·공주(公主)·방기(方技)·문원(文苑)에 있는 전을 지금 비로소 베껴 쓰는 것을 마쳤으므로 다시 봉해 올리니, 천천히 검토해 보시고, 하나의 전이 끝날 때마다 하나하나 보내주시기를 삼가 바라고 바랍니다.”라고 하였다.⁴⁵⁾ 이 어찰은 정조가 후비열전에 송 광종의 비 이후를 넣었는데 홍봉한의 수정본에서 빠지자, 한번 검토한 후에 취사선택을 정하자는 것과 종실·공주·방기·문원 열전의 발췌본을 보내면서 교정을 부탁하는 내용이다.

6월 4일 어찰(국중본)에 의하면, “후비전에 이후를 첨가해 넣은 일은 삼가 잘 보았습니다. 원고를 말씀하신대로 봉납(封納)하고, 은일전(隱逸傳)에서 새로 초록한 것도 아울러 보내드립니다. 나머지는 예를 갖추지 못하고 편지를 올립니다.”라고 하였다.⁴⁶⁾ 이 어찰은 6월 3일 어찰에서 홍봉한이 이후를 빼자 취사선택을 다시 물었고, 홍봉한이 다시 이후를 수정본에 넣은 것과 은일전의 발췌본을 정조에게 보낸 것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이다.

9월 23일 어찰(국중본)에 의하면, “지난번에 초록하여 보내드린 도학열전(道學列傳)은 이전처럼

43) 정조, “영조 48년 5월 어찰,” 『정조어찰첩』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3), 138-139.

“…三傳依領 而適因撓撓 姑未詳閱 當於後便 略貢愚見耳 卓行循吏佞倖叛臣四傳 又此書呈 而鱗次抄納 煩聒甚矣 是庸悚歎 …”

44) 정조, “영조 48년 5월 19일 어찰,” 『정조어찰첩』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3), 144-145.

“…宦戚列傳抄出 故茲以書呈 而不必忙爾校正 徐徐詳考 鱗次入送 伏望伏望 …”

45) 정조, “영조 48년 6월 3일 어찰,” 『정종대왕어필간첩(定宗大王御筆簡帖)』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2013), 2-3.

“…日昨惠來三傳增刪者 詳細奉覽 其增其拔 俱甚精當 無容更議 而第於后妃列傳 光宗李后之當初抄錄 出於懲鑑之意 而改本見拔 伏想似有深量者 然更此書質 以定取捨 伏計耳 近日繼抄 宗室公主方技文苑中傳 今始畢贍 故又茲奉呈 徐徐照檢 隨一傳畢 這這入送 伏望伏望 …”

46) 정조, “영조 48년 6월 4일 어찰,” 『정종대왕어필간첩(定宗大王御筆簡帖)』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2013), 4.

“…后妃傳 李后添入事謹悉 而原藁亦依教封納 隱逸傳新抄者 并以送去耳…”

살펴 검사하신 뒤에 보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라고 하였고,⁴⁷⁾ 10월 2일 어찰(국중본)에 의하면, “『송사』 열전 목록과 초록한 열전 8책을 써서 보냅니다. 이전처럼 필삭하여 보내주시기를 삼가 바라고 바랍니다.”라고 하였으며,⁴⁸⁾ 10월 12일 어찰(국중본)에 의하면, “역사책을 초록한 것 3권을 보내드리니, 이전처럼 수정하고 다듬어 보내주시기를 삼가 바라고 삼가 바랍니다.”라고 하였다.⁴⁹⁾ 이 세 어찰을 보면, 정조가 9월 23일에 홍봉한에게 도학열전의 교정을 부탁하였고, 10월 2일에는 『송사』 열전 목록과 초록한 열전 8책을 보내서 필삭을 부탁하였으며, 10월 12일에는 송사 발췌본 3권을 보내서 수정을 부탁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넷째, 찬(贊)은 정조가 저술하고, 서기(序記)는 홍낙인이 저술하였음을 알 수 있다.

3월 26일의 어찰(한중연본)에 의하면, “찬은 일단 거칠게 지어놓았으므로 추후 다듬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였고,⁵⁰⁾ 4월 15일의 어찰(한중연본)에 의하면, “찬은 아직 완성하지 못했으니 마땅히 추후 써서 보낼 계획입니다.”라고 하였다.⁵¹⁾ 이 두 어찰의 내용은 정조가 찬을 거칠게 지어 놓았으므로 다듬어서 홍봉한에게 보낼 계획인데 아직 완성하지 못했다는 내용이다. 찬은 중국 역대 사서에서는 기, 전, 표, 지의 말미에 붙이는 방식인데, 정조가 지은 찬의 내용은 현재 초안이 남아있지 않아 내용은 알 수 없다.

3월 15일 어찰(한중연본)에 의하면, “큰 외삼촌이 지은 서기를 가까운 시일 안에 베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라고 하였다.⁵²⁾ 이는 정조가 큰 외삼촌 홍낙인이 지은 서기를 베껴 보내주시길 바라는 내용이다. 서기는 역사서 본기 앞에 붙이는 글인데 초안이 남아있지 않아 내용은 알 수 없다.

다섯째, 유림전의 교정은 홍낙신이 하였다.

6월 22일 어찰(국중본)에 의하면, “일전에 유림전 가운데서 상편을 초록하여 둘째 외숙(홍낙신)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이미 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중, 하편은 비로소 정서하였으므로 삼가 올립니다.”라고 하였다.⁵³⁾ 이 어찰에서 정조가 유림전 가운데 상편을 초록하여 홍낙신에게 보낸 것으로

47) 정조, “영조 48년 9월 23일 어찰,” 『정종대왕어필간첩(定宗大王御筆簡帖)』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2013), 22.

“…頃者所抄道學列傳 如已照檢入送 ….”

48) 정조, “영조 48년 10월 2일 어찰,” 『정종대왕어필간첩(定宗大王御筆簡帖)』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2013), 23-24.

“…宋史列傳目錄及抄傳八冊 茲庸書納 如前筆削入送 伏望伏望 ….”

49) 정조, “영조 48년 10월 12일 어찰,” 『정종대왕어필간첩(定宗大王御筆簡帖)』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2013), 26-27.

“…史抄三卷列送去 如前刪潤入送 伏望伏望 ….”

50) 정조, “영조 48년 3월 26일 어찰,” 『정조어찰첩』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3), 110-111.

“…贊姑著出 故當追後製送伏計耳…”

51) 정조, “영조 48년 4월 15일 어찰,” 『정조어찰첩』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3), 116-117.

“… 贊則姑不製出 當追後書送 伏計耳…”

52) 정조, “영조 48년 3월 15일 어찰,” 『정조어찰첩』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3), 104-105.

“…伯舅(洪樂仁)所著序記 從近騰送 伏望伏望…”

53) 정조, “영조 48년 6월 22일 어찰,” 『정종대왕어필간첩(定宗大王御筆簡帖)』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보아 그에게 교정을 맡겼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이다.

3. 『어정송사전』 100권본

『어정송사전』 100권본은 정조가 편찬한 서례(序例)에 의거하여 정조가 동궁시절의 스승이었던 빈료 12명에게 편집과 교정을 맡겨, 정조 4년(1780) 10월 10일에 본기 4권, 지 34권, 세가 4권, 열전 56권, 의례 1권, 목록 1권 등 총 100권 40책으로 이루어졌다.

이 책의 편집과 교정을 맡은 12인은 서명응, 황경원, 심념조, 이진형, 서유린, 서호수, 이재학, 유의양, 정지검, 정민시, 이승고, 이병모이다.⁵⁴⁾ 이중 편찬을 주관한 서명응은 전문(箋文)과 서문을 썼고, 황경원은 서문, 본기, 세가 및 열전의 사론(史論)을 작성했으며, 심념조는 56칙(則)의 의례를 작성하였다.

편찬의 총 책임을 맡은 서명응(徐命膺, 1716~1787)은 본관은 대구(大邱), 자는 군수(君受), 호는 보만재(保晩齋)인데 정조가 하사한 것이다. 아버지는 서종옥(徐宗玉, 1688~1745)이고, 서명선(徐命善, 1728~1791)이 아우이다. 그는 아버지 서종옥과 어린 시절을 외가에서 보내면서 외조부 이집(李堦, 1664~1733)과 외삼촌 이주진(李周鎭, 1692~1749)에게 학문을 배웠다.⁵⁵⁾ 영조 30년(1754) 증광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영조 35년(1759) 부제학, 영조 45년(1769) 형조판서 및 영조 47년(1771) 이조판서 등을 거쳤다.⁵⁶⁾ 영조 31년(1755) 8월 진하겸사은사의 서장관으로, 영조 45년(1769) 6월 동지정사로 중국에 다녀왔다.⁵⁷⁾ 영조 48년(1772) 9월 세자우빈객을 겸하면서 세손(뒤의 정조)의

2013), 9-10.

“…日前儒林傳抄上篇 書呈仲舅矣 想已下覽 而中下篇 今始正書 故茲庸伏呈耳 ….”

54) 『정조실록(正祖實錄)』 10권, 정조 4년 10월 10일(을묘) 1번째 기사.

“… 教曰 校勘諸臣 原任賓客奉朝賀徐命膺 右參贊黃景源 原任桂坊承旨沈念祖 各熟馬一匹面給 原任春坊監司李鎮衡 參判徐有隣 徐浩修 義州府尹李在學 大司諫柳義養 原任桂坊參議鄭志儉 內下表裏各一襲賜給 原任春坊參判鄭民始 李崇祐 各中鹿皮一令賜給 行副司直李秉模兒馬一匹賜給 ….”

이들의 행적에 대해서는 홍승태, “송사전 유림전의 송유계통론,” 『한국사학사학보』 제30권(2014.12), 259-260에서 간략하게 다루었다.

55) 서명응, 『보만재집(保晩齋集)』 권12 『吏曹判書忠靖李公墓誌』.

“命膺 於公爲妹之子 自幼養育 又多在公門.”

56) 『영조실록(英祖實錄)』 94권, 영조 35년 10월 11일(무자) 1번째 기사. “戊子 以徐命膺爲副提學”

『영조실록(英祖實錄)』 113권, 영조 45년 10월 5일(계축) 3번째 기사. “… 徐命膺爲刑曹判書 ….”

『영조실록(英祖實錄)』 116권, 영조 47년 1월 12일(갑인) 2번째 기사. “以徐命膺爲吏曹判書”

57) 『영조실록(英祖實錄)』 85권, 영조 31년 8월 26일(정묘) 1번째 기사.

“丁卯 以海運君 樴爲進賀兼謝恩正使 黃景源爲副使 徐命膺爲書狀官 金漢老爲掌令.”

『영조실록(英祖實錄)』 112권, 영조 45년 6월 25일(을해) 1번째 기사.

“乙亥 命陞忠清水使徐命膺爲冬至正使 時正使韓光會被彈不肯行 領相洪鳳漢言 當品中無可往者 上特除命膺爲正使….”

교육을 전달하게 되었다.⁵⁸⁾ 그는 정조를 위해 『계몽도설(啓蒙圖說)』, 『역학계몽집전(易學啓蒙集箋)』, 『자치통감강목삼편(資治通鑑綱目三編)』, 『주자회선(朱子會選)』 등의 교재를 편찬했는데 이들 서적은 정조의 청년기 학문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⁵⁹⁾ 서명응은 정조가 즉위하고 규장각이 설립되자 정조 즉위년(1776) 10월 18일 평안도관찰사로 규장각의 제학을 겸하였다.⁶⁰⁾ 이후 서명응은 규장각의 최고 책임자로서 창설 초기의 규장각을 정비하고 국가적 편찬 간행사업을 주도하였다. 그는 북학파(北學派)의 비조(鼻祖)로 일컬어지며, 이용후생을 추구하는 학문 정신은 아들 서호수(徐浩修), 손자 서유구(徐有渠)에 이어져 가학의 전통이 세워지기도 하였다.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 『어정송사전』, 『규장총목(奎章總目)』, 『국조보감(國朝寶鑑)』의 편찬에는 서호수와 함께 참여하였다.⁶¹⁾ 이후 관중추부사, 수어사, 대제학 등의 내외직을 겸하였다. 정조 4년(1780) 3월 17일 봉조하가 되었다가 정조 11년(1787) 12월 20일에 죽었다.⁶²⁾

정조 4년(1780) 10월 10일에 올린 봉조하 서명응 등이 올린 『어정송사전』의 진전문을 보면 정조가 만든 서례에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이 제시되어 있다. 이 서례와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본기, 지, 세가, 열전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기는 이제(二帝)를 존중하고 삼노(三虜)를 억제함으로써 만세의 큰 법을 세웠고, 후비를 짝지어 놓은 의의는 건곤(乾坤)에서 취하였다.⁶³⁾

『송사』의 본기는 태조(太祖, 960~975), 태종(太宗), 진종(眞宗), 인종(仁宗), 영종(英宗), 신종(神宗), 철종(哲宗), 휘종(徽宗), 흠종(欽宗), 고종(高宗), 효종(孝宗), 광종(光宗), 영종(寧宗), 이종(理宗), 도종(度宗), 영국공(瀛國公)(二王附)으로 되어 있다.

『송사』의 본기는 태조 이하 영국공 즉 공종(恭宗, 1275~1276)까지만 다루고 그의 두 아들인 시(昰)와 병(昺)은 부기하는 형식을 취하였는데,⁶⁴⁾ 『어정송사전』에서는 이들을 단종과 말제로 구분하고 각각 독립된 본기로 다루어 그 정통성을 인정하였다.⁶⁵⁾ 즉 송의 역사를 태조 이하 말제(末帝, 1278~1279)까지 기록하여 이제를 존중한 것이다. 삼노를 억제하였다는 것은 요(遼), 하(夏), 금(金)

58) 『일성록(日省錄)』 영조 48년(1772) 9월 2일(갑오).

“行賓客相見禮于尊賢閣 以右賓客 徐命膺新除也.”

59) 김문식, “『徐命膺의 생애와 규장각 활동,』 『한국학(구 정신문화연구)』 제22권 제2호(1999), 155.

60) 『정조실록(正祖實錄)』 2권, 정조 즉위년 10월 18일(병진) 2번째 기사.

“以蔡濟恭爲禮曹判書 具允鉦爲刑曹判書 吳載純爲弘文館副提學 李宜哲爲成均館大司成 以平安道觀察使徐命膺爲奎章閣提學 仍命勿遞藩任 以兼銜仍帶 用宋知州府兼觀文殿太學士之制也.”

61) 김문식, “『徐命膺의 생애와 규장각 활동,』 『한국학(구 정신문화연구)』 제22권 제2호(1999), 161.

62) 『정조실록(正祖實錄)』 9권, 정조 4년 3월 17일(병신) 3번째 기사. “以判中樞徐命膺爲奉朝賀 ….”

『정조실록(正祖實錄)』 24권, 정조 11년 12월 20일(계축) 3번째 기사. “奉朝賀徐命膺卒.”

63) 『정조실록(正祖實錄)』 10권, 정조 4년 10월 10일(을묘) 1번째 기사.

“…奉朝賀徐命膺等進箋文 箋曰 …爰定一部序例 尊二帝而抑三虜 立萬世之大經 …配后妃於本紀 義取乾坤 ….”

64) 『송사(宋史)』 권47 『本紀』瀛國公.

“(二王附) 二王者 度宗庶子也 長建國公昰 母淑妃楊氏 季永國公昺 母修容俞氏.”

65) 金文植, “『宋史』에 나타난 李德懋의 역사인식, 『동아시아문화연구』 33(1999), 35.

을 격하시켜 역시 송나라의 정통성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송사』에서는 후비를 열전에 넣었는데 『어정송사전』에는 후비를 본기에 넣어서 후비를 제왕의 짝으로 인정하였으니 그 의의가 건곤에서 취하였다고 한 것이다.

둘째, 지는 천문(天文), 오행(五行), 역(曆), 지리(地理), 하거(河渠), 예(禮), 악(樂), 의위(儀衛), 여복(輿服), 선거(選舉), 직관(職官), 식화(食貨), 병(兵), 형법(刑法), 경적지(經籍志)로 구성하였다. 『송사』의 율력(律曆)을 역으로, 예문지(藝文志)를 경적지로 바꾼 것일 뿐 큰 차이는 없다.

율력을 역으로 한 것은 율과 역이 합해지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하여 『명사(明史)』의 예에 따라 율은 악지로 편입시키고, 역만 남겨 두었다.⁶⁶⁾

또한 “오행은 재상과 상서를 분변하여 예측에 대비하였고, 칠요(七曜)의 능멸과 침범을 분간하여 추수(推數)를 대략 거론하였다. 예는 절문(節文)을 보충하자 각의(閣儀)가 찬란하게 정연하였고, 음악의 조리를 정하니 구율(舊律)의 화음만 취하였다. 지리는 지형을 소상히 기록하여 드디어 양경(兩京)의 궁전까지 적었는가 하면, 수리(水利)를 두루 서술하면서 구하(九河)의 관개와 조운에 관해 가장 자세히 하였다. 경적을 숭상하고자 예문지의 명칭을 개정하였고, 선거는 인재의 선거에 전주(銓注)를 기록하면서 당연히 참고해 보았지만, 관직의 품계를 늘어 놓으면서도 대부분 옛날 것을 그대로 썼다. 의위와 여복은 크고 작은 것을 망라하여 빠뜨리지 않았고, 식화와 병형은 번잡한 것은 애써 제거하였다.”라고 하였다.⁶⁷⁾

셋째, 세가를 보면, 『어정송사전』에서는 『송사』에 있던 표(表; 宰輔表, 宗室世系表)를 삭제하는 대신에 세가를 만들고, 열전에 들어 있던 종실을 세가로 올렸다. 이는 세가에다 종실을 배열하여 황족(皇族)의 계파를 구분하기 위한 것이었다.⁶⁸⁾ 재보세가(宰輔世家)를 만들고 오현을 표출했는데,⁶⁹⁾ 북송의 명신 조보(趙普), 조빈(曹彬), 이항(李沆), 한기(韓琦), 사마광(司馬光)과 남송의 장준(張浚), 이강(李綱), 한세충(韓世忠), 악비(岳飛), 문천상(文天祥)을 묶어 재보세가를 만들고, 성리학의 성립에 공헌한 다섯 명의 현인 즉 주돈이(周敦頤), 정호(程顥), 정이(程頤), 장재(張載), 주희(朱熹)의 오현 세가(五賢世家)를 새로 설정하였다.⁷⁰⁾

넷째, 열전을 보면, 『송사전』에서는 『송사』에 없는 유민전(遺民傳)을 설정하여 송의 유민들이 자신의 도리를 다하여 나라에 보답한 의리를 천명하도록 하였다.⁷¹⁾ 이때의 유민전은 송나라에 대한

66) 李成珪, “『宋史箋』의 編纂背景과 그 特色: 조선학인의 중국사편찬에 관한 연구,” 『진단학보』 49(1980), 102.

67) 『정조실록(正祖實錄)』 10권, 정조 4년 10월 10일(을묘) 1번째 기사.

“… 奉朝賀徐命膺等進箋文 箋曰 … 辨五行之禋禘 備厥占候 分七曜之凌犯 略其步推 禮補節文 粲閣儀之威秩 樂定條理 取舊律之克諧 該載地形 遂及兩京之宮殿 歷敘水利 最詳九河之漑漕 尊經籍則改藝文之名 … 錄銓注於選舉 在所參看 序爵階於職官 且多仍舊儀 衛與服 總巨細而不遺 食貨兵刑 務繁冗之是祛 …”

68) 『정조실록(正祖實錄)』 10권, 정조 4년 10월 10일(을묘) 1번째 기사.

“… 奉朝賀徐命膺等進箋文 箋曰 … 列宗英於世家 系分潢派 …”

69) 『정조실록(正祖實錄)』 10권, 정조 4년 10월 10일(을묘) 1번째 기사.

“… 奉朝賀徐命膺等進箋文 箋曰 … 躋群輔而表五賢 備前史之闕典 …”

70) 이성규, “『宋史箋』의 編纂背景과 그 特色: 조선학인의 중국사편찬에 관한 연구,” 『진단학보』 49(1980), 103.

충절을 지키고 원조에 출사를 거부한 119인의 열전으로 『송사』는 물론이고 이전의 정사에는 없던 것을 추가한 것이다. 이때 참조가 된 것은 송렴(宋濂)의 『원사(元史)』, 여유량(呂留良)의 『송시소전(宋詩小傳)』, 조정동(曹廷棟)의 『송시존(宋詩存)』, 고사립(顧嗣立)의 『원시선(元詩選)』, 도구성(陶九成)의 『철경록(輟耕錄)』, 주밀(周密)의 『계신잡식(癸辛雜識)』, 왕기(王圻)의 『절의고(節義考)』, 조맹부(趙孟頫)의 『송설집(松雪集)』 등에서 산견되는 송나라 유민의 사적을 참고하여 만들었다.⁷²⁾ 간신전(姦臣傳)과 영행전(佞幸傳)은 간사하고 충애를 받는 이들이 과당을 지은 것에 대한 평가를 엄히 내리고 역적들이 두려워하도록 하였다.⁷³⁾ 간신전에는 정위(丁謂), 하송(夏竦), 왕흠약(王欽若), 탕사퇴(湯思退), 사미원(史彌遠), 사송지(史嵩之) 등 30여 인을 보강했는데,⁷⁴⁾ 정조는 이들을 일반 열전에 두지 않고 별도로 간신전에 이입시킨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⁷⁵⁾ 송사의 세가전(世家傳)을 구씨전(九氏傳)으로 바꾸고 귀화한 자들을 편입하면서 구씨의 순으로 하였다.⁷⁶⁾ 송사의 반신전을 반역전으로 바꾸고 불복(不服)한 사람들을 표출해내어 삼충(三忠)의 순서별로 하였다.⁷⁷⁾ 송사의 방기전을 예술전으로 바꾸었는데, 이단(異端)을 통일하고자 한 것이다.⁷⁸⁾

정조는 『어정송사전』 100권본 40책 필사본을 판본에 새겨 반포해서 숙원하였던 업을 끝마치려고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참작하여 제정한 것이 혹시라도 틀린 것이 있을까 염려되므로 마땅히 상세하게 고증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곧바로 비부(秘府)에 보관해 두었다.⁷⁹⁾ 정조가 이 책을 간행하지 않는 속내는 좀 더 구체적인 데 있었다. 즉 신하들이 뜻을 굽히지 않아 간신전과 영행전 등에 한두 권 정조와 상반되는 곳에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⁸⁰⁾

71) 『정조실록(正祖實錄)』 10권, 정조 4년 10월 10일(을묘) 1번째 기사.
 “... 奉朝賀徐命膺等進箋文 箋曰 ... 闡遺民靖獻之義 志士霑襟 ...”

72) 『어정송사전(御定宋史箋)』 卷首, 『御定宋史箋義例』.

73) 『정조실록(正祖實錄)』 10권, 정조 4년 10월 10일(을묘) 1번째 기사.
 “... 奉朝賀徐命膺等進箋文 箋曰 ... 嚴奸佞黨與之誅 亂賊知懼 ...”

74) 李德懋,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권21 編書雜稿 1, 宋史箋義例改正.
 “... 義例 以丁謂 夏竦 王欽若 湯思退 史彌遠 史嵩之移次于姦臣傳 又以林持等三十餘人 一一類附 ...”

75) 정조, 『홍재전서(弘齋全書)』 권173, 『日得錄』 13, 人物 3.
 “... 御定宋史箋告成. 謂校正閣臣曰 姦臣傳中如丁謂輩之特書 予則以爲已甚矣 如丁謂之姦 雖置諸列傳 自可昭然難掩 何必別立二字之目 以成千古之案乎 ...”

76) 『정조실록(正祖實錄)』 10권, 정조 4년 10월 10일(을묘) 1번째 기사.
 “... 奉朝賀徐命膺等進箋文 箋曰 ... 編歸化而次併九氏 ...”

77) 『정조실록(正祖實錄)』 10권, 정조 4년 10월 10일(을묘) 1번째 기사.
 “... 奉朝賀徐命膺等進箋文 箋曰 ... 標不臣而序別三忠 ...”

78) 『정조실록(正祖實錄)』 10권, 정조 4년 10월 10일(을묘) 1번째 기사.
 “... 奉朝賀徐命膺等進箋文 箋曰 ... 統異端則變方技之目 ...”

79) 『정조실록(正祖實錄)』 10권, 정조 4년 10월 10일(을묘) 1번째 기사.
 “... 後十二年辛亥 上諭內閣曰... 越於四年庚子 繕寫進呈 嗣欲刊梓頒行 以竟夙業 猶慮裁酌或差 當須詳証 旋藏秘府 閱今又十有二年矣 ...”

80) 정조, 『홍재전서(弘齋全書)』 권164, 『日得錄』 4, 文學 4.
 “... 諸臣或請刊布 而不但予自視歉然 不欲張大 凡史記 與他文字有異 悉書人之善惡 自我而揚人之善則固好 若由我而不能隱人之惡 則此最不可 又於姦臣佞倖等傳 因諸僚見執 有一二件之與本意相反者 此尤不可出也.”

4. 『어정송사전』 150권본

정조는 4년(1780) 10월 10일에 완성된 『어정송사전』 100권 40책을 간행하지 않고 비부에 두었다. 정조는 8년(1784)에 『어정송사전』 100권본을 이덕무에게 수정을 맡겨 15년(1791)에 완성하고 관학 제생들에게 선사교대시켜 의례 1권, 목록 1권, 본기 8권, 지 47권, 세가 2권, 열전 91권의 총 150권 61책으로 완성하였다. 이 완성본이 현재 규장각에 남아 있는 奎1800의 『어정송사전』이다.

이덕무(李德懋, 1741~1793)는 본관이 전주이다. 초명은 종대(種大), 자는 명숙(明淑), 무관(懋官)이다. 호는 삼호거사(三湖居士), 경재(敬齋), 팔분당(八分堂), 선굴헌(蟬橘軒), 정암(亭崑), 을엄(乙乙), 형암(炯菴), 영처(嬰處), 감감자(愍愍子), 범재거사(汎齋居士) 등이 있고,⁸¹⁾ 대표적인 것으로는 청장관(靑莊館), 아정(雅亭)이 있다.⁸²⁾ 아버지는 통덕랑(通德郎) 성호(聖浩)이다. 서자로 태어났다. 정조 3년(1779) 박제가(朴齊家), 유득공(柳得恭), 서리수(徐理修)와 함께 규장각의 외각 검서관이 되었고, 정조 5년(1781) 내각검서관이 되었다. 정조 8년(1784)에 적성현감이 되었고, 정조 15년(1791)에 사옹원 주부가 되었다. 정조 17년(1793)에 죽었다. 그의 벼슬은 검서관이 주된 역할이었다. 검서관의 업무는 정조의 명에 의해 편찬 간행된 서적의 편교(編校), 교정(校正), 감인(監印), 교감(校勘) 등에 관한 일이었다. 그 결과물은 주로 정조의 뜻에 따라 왕의 치적을 정리하거나 국가 체제 정비를 위한 것이었다.⁸³⁾ 그는 벼슬을 높게 하지 못했지만 홍대용(洪大容), 박지원(朴趾源), 서리수 등과 깊은 교분관계를 맺었는데, 특히 홍대용과 가까웠다. 홍대용이 중국 사행을 다녀오면서 청대 문인들의 명성을 듣게 되었다. 그는 정조 2년(1778) 사은겸진주사 심념조의 서장관으로 유득공, 박제가와 함께 연경에 가게 되었다. 이때 반정균(潘庭筠)과 이조원(李調元) 등 중국 학자들과 만나게 되었으며 반정균이 이때 ‘청장관’이라는 당액(堂額)을 그에게 써 주었다. 여행을 통해 형성된 청대 문인들과의 교류는 그의 실학적 학풍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⁸⁴⁾

그는 정조 8년(1784) 적성현감으로 근무하면서 검서관직을 겸하고, 정조의 뜻을 받아 『어정송사전』 100권본의 수정 작업에 깊이 관여하였다. 『어정송사전』의 의례를 개정하여 몇 가지 수정원칙과 수정 내용을 밝혔다. 이 의례 개정본의 내용은 정조가 15년(1791)에 내린 상유(上諭)에도 상세하게 드러나 있다. 이들 자료와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81) 李德懋,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권3 嬰處文稿 1, 記號.

“三湖居士 弱冠豪氣 有志於莊敬日強 嘗號敬齋 有志 斯有指而欲至焉 於是 又號八分堂 八分 其庶幾乎君實之 九分 家貧 屋如斗小而亦樂焉 乃弓諸玄蟬之殼 二叟之橘 又號蟬橘軒 欲所遇而修焉 又號以亭崑 燕其遜也 又號乙乙 而欲遜焉 其心欲水鏡焉 故又號炯菴 夫敬事而修 庶幾乎古人 而清心如水 遜臥於矮屋下 蔚烟蕭瑟 而點筆爲文章 燁然如朝華 斯人乎猶不居焉 嗚曰是嬰兒之好弄也 吾將守之如處子焉 於是題其藁曰嬰處 其與羣居也 韜眞而晦光 愍愍如也 於端人莊士 歡焉 於市人 亦歡焉 蓋虛舟獨汎 無遣而不逍遙遊矣 於是人又爲之號 愍愍子 亦號汎齋居士 嘗家三湖 自謂三湖居士 斯號之始.”

82) 청장관(靑莊館)의 청장은 해오라기의 별명이다. 이 새는 강이나 호수에 사는데, 먹이를 뒤쫓지 않고 제 앞을 지나가는 물고기만 쫓아 먹는다. 그래서 신천옹(信天翁)이라고도 한다. 아정(雅亭)은 깨끗한 성품을 반영하였다.

83) 권정원, “이덕무 후기문학의 변모양상과 정조,” 『동양한문학연구』 제53권(2019), 13-14.

84) 夫銀兒, “李德懋 文學論 研究,” 『역사와 실학』 17·18(2000), 476-478.

첫째, 『어정송사전』 100권본 본기에서는 두태후전(杜太后傳)을 추려서 그 사실을 태조 본기(太祖本紀)에 옮겨 신고, 공주전(公主傳)은 구사(舊史)를 따라서 앞에다 진국장공주(秦國長公主)를 실었다. 장공주는 태조의 누이이다. 이미 제(帝)의 누이의 열전은 쓰고 모후(母后)는 쓰지 않아 체례가 현격한 차이가 나므로 『어정송사전』 150권본에서는 태조 본기(太祖本紀)에 실려 있는 두후(杜后)의 사실을 추려내어 다시 후본기(后本紀)의 앞머리에 실었다.⁸⁵⁾

둘째, 『어정송사전』 100권본 지에서는 구사의 예문지를 고쳐 경적지로 하였는데, 『어정송사전』 150권본 지에서는 다시 경적지를 예문지로 바로잡았다. 그 이유는 “예문지가 반고(班固)의 『한서(漢書)』에서 비롯되고 경적지는 『수서(隋書)』에서 시작된 것으로서 그 뜻이 별로 다르지 않다. 옛것을 그대로 따르는 것만 같지 못하므로 이제 예문지로 바로잡았다.”라고 하였다.⁸⁶⁾

셋째, 세가에서는 재보세가와 오현전을 열전으로 옮겼다. 정조는 이에 대해 “대개 남송과 북송의 명신(名臣)과 석보(碩輔)들은 같은 지위와 같은 덕망으로 줄줄이 잇따라 있어 실로 취사선택하기가 어렵다. 각각 다섯 명씩 세가에 올린 것은 억지로 정한 것에 가까우므로 이제 모두 다시 열전에 편차한다. 의례에 주자(周子)·장자(張子)·이정자(二程子)·주자(朱子) 다섯 현인을 세가에 올렸는데, 이는 대개 사마천이 지은 『사기』의 공자 세가(孔子世家)의 사례를 따른 것이다. 그러나 다섯 현인의 도덕과 공업은 해와 달처럼 제시되어 우주에 뻗었으므로 세가로 한다고 해서 비로소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열전으로 한다고 해서 손상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이제 따로 오현열전을 지어 특별히 여러 신하들의 맨 위에다 편차하여 표장(表章)하는 서법(書法)을 표현하였다.”⁸⁷⁾라고 하였다.

넷째, 열전에서는 세가의 재보세가에 넣었던 인물들을 열전에 넣고, 오현전도 오현열전으로 열전의 제신 앞에 두었다.⁸⁸⁾ 공주전은 외척전 아래에 있던 것을 열전의 앞머리에 두어 세가의 종실전 다음에 두는 것의 개념으로 하였다.⁸⁹⁾ 유립전에 들어 있던 목수(穆脩)를 문원전의 유개(柳開) 다음

85) 李德懋,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권21 編書雜稿 1, 宋史箋義例改正.
“… 義例 刪減杜太后傳 移編事案于太祖本紀 而公主傳則依舊史 首載秦國長公主 長公主 太祖之妹也 既傳帝妹 不紀母后 體例逕庭 故今刪杜后事案之載太祖本紀者 還編于后本紀之首 …”

86) 李德懋,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권21 編書雜稿 1, 宋史箋義例改正.
“… 義例 改舊史藝文志 爲經籍志 藝文昉於班史 經籍昉於隋書 而其名義不甚異也 則不如仍舊之爲愈 故今正之 …”

87) 『정조실록(正祖實錄)』 10권, 정조 4년 10월 10일(을묘) 1번째 기사.
“… 後十二年辛亥 上諭內閣曰 … 蓋南北宋名臣碩輔 地醜德齊 磊落相望 實難取捨 各陞五人 近于硬定 今竝還次列傳 義例 陞周張程朱 五賢于世家 蓋從遷史孔子世家之例 然五賢之德之功 揭日月而亘宇宙 則不以世家而始尊 不以列傳而或損 故今另立五賢列傳 特次于諸臣之首 以寓表章之書法 …”

88) 李德懋,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권21 編書雜稿 1, 宋史箋義例改正.
“… 義例 以北宋之趙普 曹彬 李沆 韓琦 司馬光 南宋之張浚 李綱 韓世忠 岳飛 文天祥凡十人 爲宰輔世家 蓋南北宋名臣碩輔 地醜德齊 磊落相望 案難取捨 若以南北宋各五人 陞于世家 則此雖出於旌功叙尊 而近于硬定排擬 今依舊史 還次于列傳 義例 特陞周敦頤張載程顥程頤朱熹五賢于世家 蓋從遷史孔子世家之例 然五賢之功德 揭日月而亘宇宙 則不以世家而始尊 不以列傳而或損 故今另立五賢列傳 特次于諸臣之首 …”

89) 李德懋,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권21 編書雜稿 1, 宋史箋義例改正.
“… 義例 公主傳 降置外戚之上 以避婦人 而在廷臣之上 此則不然 公主雖曰婦人 亦係懿親 宜居宗室之下 爲列傳之首 …”

으로 옮겼고, 문원전에 들어 있던 섭적(葉適)을 유림전으로 옮겼다.⁹⁰⁾ 문원전에 들어 있던 증공(曾鞏)과 홍매(洪邁)를 제신전으로 옮겼다.⁹¹⁾ 삭제되었던 탁행전(卓行傳)을 복원하고, 효의전 끝에 붙였던 유정식(劉廷式), 소곡(巢谷), 서적(徐積), 증숙경(曾叔卿), 유영일(劉永一)을 탁행전으로 옮겼다.⁹²⁾ 유민전은 이덕무가 원 오입부(吳立夫) 『상해록(桑海錄)』, 명 정극근(程克鄞) 『송유민록(宋遺民錄)』, 이소유(李小有) 『광유민록(廣遺民錄)』, 만사동(萬斯同) 『송계충의록(宋季忠義錄)』 및 여러 서적에서 널리 채록(採錄)하여 보완하였다.⁹³⁾ 이덕무가 정리한 인물은 119명이다.⁹⁴⁾ 이 숫자는 『어정송사전』 100권본의 유민전과 동일한데, 이때 정리하면서 각 인물들이 얼마나 달라지고 보강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비교할만한 데이터가 없어 알 수 없다.

90) 李德懋,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권21 編書雜稿 1, 宋史箋義例改正.

“… 義例 移編穆脩于儒林傳 以其傳易學也 然陳搏爲宋初易學之首 而置之隱逸 則脩之爲儒林 無乃不可乎 且脩與柳開 倡國初之古文 丕變文體 故今又移次于文苑傳柳開之下 義例 葉適移編文苑傳 以其古文名世也 然有薦賢衛道之功 不可以一文人蔽之也 故今仍舊史 還于儒林傳 …”

91) 李德懋,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권21 編書雜稿 1, 宋史箋義例改正.

“… 義例 曾鞏 洪邁 移編文苑傳 鞏以文詞 邁以博洽也 狀二人俱位躋宰列 蔚爲名碩 不可但以文詞博洽與之今依舊史 還次諸臣之列 …”

92) 李德懋,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권21 編書雜稿 1, 宋史箋義例改正.

“… 義例 刪卓行傳 以劉廷式 巢谷 徐積 曾叔卿 劉永一等 編于孝義傳之末 而積與永一 固有孝行 其餘三人 不可強附 舊史別立卓行 雖甚無謂 無寧仍舊之爲愈 故今正之 …”

93) 李德懋,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권21 編書雜稿 1, 宋史箋編撰議.

“…元吳立夫撰桑海錄 明程克鄞撰宋遺民錄 李小有撰廣遺民錄 萬斯同撰宋季忠義錄 今其書不可得而續 則博採羣書 牽連而書之 爲遺民傳…”

94) 李德懋,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권21 編書雜稿 1, 宋史箋遺民列傳.

이덕무가 정리한 유민전 119명의 인물은 1) 사교(謝翱), 2) 방봉(方鳳), 3) 오사제(吳思齊), 4) 오위(吳渭), 5) 등목(鄧牧), 6) 정사초(鄭思肖), 7) 나공승(羅公升), 8) 정초옹(程楚翁), 9) 진몽립(陳夢立), 10) 당각(唐珏), 11) 왕영손(王英孫), 12) 임덕양(林德陽), 13) 정박옹(鄭樸翁), 14) 왕염오(王炎午), 15) 장천리(張千里), 16) 등담(鄧瑲), 17) 장경지(張慶之), 18) 등륜(滕堧), 19) 위부익(衛富益), 20) 허월경(許月卿), 21) 왕염창(汪炎昶), 22) 손숭(孫嵩), 23) 이여뢰(李如雷), 24) 오흔(吳欽), 25) 육정룡(陸霆龍), 26) 이사화(李士華), 27) 조응부(曹應符), 28) 왕한로(王漢老), 29) 진산민(眞山民), 30) 반음(潘音), 31) 장주(章鑄), 32) 진존(陳存), 33) 원사원(袁士元), 34) 사국광(謝國光), 35) 진심(陳深), 36) 호유황(胡幼黃), 37) 호차염(胡次焱), 38) 손동발(孫潼發), 39) 방봉진(方逢振), 40) 요윤공(堯允恭), 41) 진응린(陳應麟), 42) 왕복(汪復), 43) 은징(殷澄), 44) 오정옹(吳定翁), 45) 유문(游汶), 46) 흠덕계(欽德載), 47) 장첩(蔣捷), 48) 정군로(鄭君老), 49) 도춘경(陶椿卿), 50) 위복지(危復之), 51) 황묘(黃淼), 52) 오용한(吳龍翰), 53) 요해손(姚獬孫), 54) 진여달(陳汝達), 55) 왕정계(汪庭桂), 56) 예문일(倪文一), 57) 유덕린(俞德鄰), 58) 장산옹(張山翁), 59) 침응진(詹應陳), 60) 황신(黃申), 61) 모현(牟獻), 62) 왕창세(王昌世), 63) 홍희문(洪希文), 64) 진경수(陳敬叟), 65) 유준(劉準), 66) 호중립(胡仲霖), 67) 왕호(汪灝), 68) 진계손(陳桂孫), 69) 조필련(趙必漣), 70) 양동(梁棟), 71) 응본인(應本仁), 72) 기유계(岐裕齋), 73) 공사준(貢士濬), 74) 왕종신(汪宗臣), 75) 조맹견(趙孟堅), 76) 조맹반(趙孟頓), 77) 조문손(趙文孫), 78) 조혜(趙偕), 79) 조맹한(趙孟佃), 80) 문천정(文天禎), 81) 문응린(文應麟), 82) 유양조(劉揚祖), 83) 하몽계(何夢桂), 84) 왕자(王鎡), 85) 황중원(黃仲元), 86) 맹문룡(孟文龍), 87) 서준(徐俊), 88) 엽몽엽(葉夢鸞), 89) 오전장(伍典章), 90) 문천석(文天錫), 91) 김이상(金履祥), 92) 허겸(許謙), 93) 진천단(陳天端), 94) 황초연(黃超然), 95) 우석(于石), 96) 서조(徐鈞), 97) 옹화(熊禾), 98) 호삼성(胡三性), 99) 구부국(丘富國), 100) 김약수(金若洙), 101) 임응성(林應成), 102) 구규(丘圭), 103) 유우익(劉友益), 104) 정환(程煥), 105) 무주일(繆周一), 106) 유진옹(劉辰翁), 107) 황공소(黃公紹), 108) 전선(錢選), 109) 공개(龔開), 110) 음유우(陰幼遇), 111) 이순금(李旬金), 112) 진인자(陳仁子), 113) 송병손(宋秉孫), 114) 유엄(俞琰), 115) 김응계(金應桂), 116) 왕원량(汪元量), 117) 하시(何時), 118) 두준지(杜濬之), 119) 뇌사제(雷思齊)

『어정송사전』 100권본에서 간신전에 보강되었던 정위 등 30여 인을 원래의 자리로 복원하고 송사에 들어 있던 사람만을 남겨두었다.⁹⁵⁾ 반역전(叛逆傳)은 송사를 따라 반신전(叛臣傳)으로 변경하였다.⁹⁶⁾ 외국전의 위에 있던 구씨전의 위치를 주삼신(周三臣)의 위로 변경하였다.⁹⁷⁾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여 『송사』 496권본과 『어정송사전』 100권본 및 150권본의 체재를 비교하여 <표 1>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⁹⁸⁾

<표 1> 『송사』 496권본, 『어정송사전』 100권본과 150권본의 체재 비교

체재	『송사』 496권본	권	『어정송사전』 100권본	권	『어정송사전』 150권본	권
권수	序文		御定宋史筌箋 (徐命膺, 1780.10.10.) 御定宋史筌序(徐命膺, 1780.仲秋) 御定宋史筌序(黃景源, 1780) 御定宋史筌義(沈念祖)	1	上論(1791) 御定宋史筌箋 (徐命膺, 1780.10.10.) 御定宋史筌序(徐命膺, 1780.仲秋) 御定宋史筌序(黃景源, 1780) 御定宋史筌義(沈念祖) 義例補 26條(李德懋, 1791)	1
目錄		3		1		1
本紀	太祖, 太宗, 眞宗, 仁宗, 英宗, 神宗, 哲宗, 徽宗, 欽宗, 高宗, 孝宗, 光宗, 寧宗, 理宗, 度宗, 瀛國公(二王附)	47	太祖, 太宗, 眞宗, 仁宗, 英宗, 神宗, 哲宗, 徽宗, 欽宗, 高宗, 孝宗, 光宗, 寧宗, 理宗, 度宗, 恭帝, 端宗, 末帝 后妃	4	<太祖, 太宗>, <眞宗, 仁宗>, <英宗, 神宗, 哲宗>, <徽宗, 欽宗>, <高宗>, <孝宗, 光宗>, <寧宗, 理宗, 度宗, 恭帝, 端宗, 末帝>(7) 后妃(太祖母杜皇后~楊皇后) 38人(1)	8
志	天文(13), 五行(5), 律曆(17), 地理(6), 河渠(7), 禮(吉禮, 嘉禮, 賓禮, 軍禮, 凶禮)(28), 樂(17), 儀衛(6), 輿服(6), 選舉(6), 職官(12), 食貨(14), 兵(12), 刑法(3), 藝文(8)	162	天文, 五行, 曆, 地理, 河渠, 禮(吉禮, 嘉禮, 賓禮, 軍禮, 凶禮), 樂, 儀衛, 輿服, 選舉, 職官, 食貨, 兵, 刑法, 經籍	34	天文(2), 五行(2), 曆(3), 地理(2), 河渠(1), 禮(吉禮, 嘉禮, 賓禮, 軍禮, 凶禮)(11), 樂(7), 儀衛(1), 輿服(2), 選舉(2), 職官(4), 食貨(3), 兵(2), 刑法(1), 藝文(4)	47
表	宰輔(5), 宗室世系(27)	32		0		0
世家		0	宰輔世家 五賢世家(周敦頤, 程顥, 程頤, 張載, 朱熹) 宗室	4	宗室(魏王廷美)~濟王竑(2)	2

95) 李德懋,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권21 編書雜稿 1, 宋史筌義例改正.
“… 義例 以丁謂 夏竦 王欽若 湯思退 史彌遠 史嵩之移次于姦臣傳 又以林持等三十餘人 一一類附 雖嚴修史之斷例 狀姦臣是何等名目 不可遽狀加之於古人 而矧又狀疑者 不必強論 庸瑣者不足深誅 故只存舊史姦臣 舉皆還之舊次 …”

96) 李德懋,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권21 編書雜稿 1, 宋史筌義例改正.
“… 義例 叛逆傳 合唐書叛臣 逆臣傳而名之 狀若曰叛臣云爾 則固已爲逆也. 不必合稱 亟遵舊史 …”

97) 李德懋,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권21 編書雜稿 1, 宋史筌義例改正.
“… 義例 九氏列于外國之上 蓋以俘降擯之也 狀九氏皆以中國之人 乘亂割據 已先於有宋開國之初 則後雖次第爲宋所并 固不可比列於外國 今移次周三臣之上 …”

98) 金文植, “『宋史筌』에 나타난 李德懋의 역사인식,” 『동아시아문화연구』 33(1999), 39의 『송사』와 『송사전』의 체재를 참조하여 재구성하였다.

체재	『송사』 496권본	권	『어정송사전』 100권본	권	『어정송사전』 150권본	권
列傳	后妃(太祖母杜太后~楊淑妃)(2) 宗室(魏王廷美~彥逾)(4) 公主(秦國大長公主~理宗一女)(1) 范質~謝方得(177) 循吏(陳靖~葉康直)(1) 道學(周敦頤~黃灝)(4) 儒林(葉崇義~黃震)(8) 文苑(宋白~張即之)(7) 忠義(康保裔~莫謙之)(10) 孝義(李璘~鄭綺)(1) 隱逸(戚同文~安世通)(1) 卓行(劉廷式~劉永一)(1) 烈女(朱娥~毛惜惜)(1) 方技(趙修己~孫守榮)(2) 外戚(杜審琦~楊次山)(3) 宦者(竇神寶~董宋臣)(4) 佞幸(弭德超~姜特立)(1) 姦臣(蔡確~賈似道)(4) 叛臣(張邦昌~李全)(3) 世家(南唐李氏, 西蜀孟氏, 吳越錢氏, 南漢劉氏, 北漢劉氏, 湖南朱氏, 荊南高氏, 漳泉留氏, 漳泉陳氏)(6) 周三臣(韓通, 李筠, 李重進)(1) 外國(夏國, 高麗, 交趾, 大理, 占城~日本, 党項, 吐番)(8) 蠻夷(西南溪峒蠻~瀘州蠻)(4)	155	一般列傳 外戚 公主 儒林 文苑 循吏 忠義 孝義 烈女 隱逸 遺民 藝術 宦者 佞幸 姦臣 叛逆 九氏 外國 諸蠻 周三臣	56	公主(秦國大長公主~理宗一女)(1) 五賢(周敦頤, 程顥, 程頤, 張載, 朱熹) 一般列傳(范質~謝方得)(58) 外戚(杜審琦~錢忱)(1) 儒林(邵雍~陸九淵)(3) 文苑(柳開~夏侯嘉正)(3) 循吏(陳靖~葉康直)(1) 忠義(康保裔~徐道明)(3) 孝義(李璘~鄭綺)(1) 烈女(朱娥~毛惜惜)(1) 隱逸(陳搏~安世通)(1) 卓行(劉廷式~劉永一)(1) 遺民(謝翱~雷思齊)(1) 藝術(趙修己~僧懷丙)(1) 宦者(竇神寶~董宋臣)(1) 佞幸(弭德超~姜特立)(1) 姦臣(蔡確~賈似道)(2) 叛臣(張邦昌~李全)(1) 外國(高麗, 遼, 夏, 金, 蒙古~日本, 黨項, 吐番)(6) 諸蠻(西南溪峒~瀘州徼外蠻)(1) 九氏(南唐李氏, 西蜀孟氏, 吳越錢氏, 南漢劉氏, 北漢劉氏, 湖南朱氏, 荊南高氏, 漳泉留氏)(1) 周三臣(韓通, 李筠, 李重進)(1)	91
계		496		100		150

5. 결 론

『어정송사전』의 편찬 및 체재에 대해 고찰한 바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1) 정조는 『송사전』 80권본의 발췌, 편집 및 교정자이다. 정조는 영조 46년(1770) 1월 3일에 시작하여 『송사』를 읽으면서 산절했는데, 송사의 발췌, 편집 및 교정을 그해 8월 25일에 마쳤다. 본기와 지는 발췌하여 교정을 하였고, 열전은 발췌만 해두었다. 정조는 영조 46년(1770)에 작업한 『송사』의 발췌본을 다시 교정하기 위해 영조 48년(1772)에 홍봉한과 자세히 상의하였다. 서기는 홍낙인, 유림전은 홍낙신과도 상의하여 진행하였다.

2) 『어정송사전』 100권본은 정조가 편찬한 서례(序例)에 의거하여 정조가 동궁시절의 스승이었던

민료 서명응을 비롯하여 황경원, 심념조, 이진형, 서유린, 서호수, 이재학, 유의양, 정지검, 정민시, 이승고, 이병모에게 편집과 교정을 맡겨, 정조 4년(1780) 10월 10일에 본기 4권, 지 34권, 세가 4권, 열전 56권, 의례 1권, 목록 1권 등 총 100권 40책으로 이루어졌다. 이중 편찬의 총 책임을 맡은 이는 서명응이다. 그가 정조 4년(1780) 10월 10일에 쓴 진전문을 보면 정조가 만든 서례에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이 제시되어 있다. 『어정송사전』 100권본은 본기, 지, 세가, 열전으로 이루어졌다. 본기에서는 단종과 말제를 각각 독립된 본기로 다루어 그 정통성을 인정하였고, 후비를 이곳에 넣어서 제왕의 짝으로 인정되도록 하였다. 지는 천문, 오행, 역, 지리, 하거, 예, 악, 의위, 여복, 선거, 직관, 식화, 병, 형법, 경적지로 구성되었다. 송사에서 율력을 역으로, 경적지를 예문지로 바꾼 것일 뿐 큰 차이는 없다. 세가에서는 『송사』에 있던 표를 삭제하는 대신에 세가를 만들고, 열전에 들어 있던 종실을 세가로 올렸다. 재보세가와 오현세가를 새로 만들었다. 열전에서는 『송사』에 없는 유민전이 설정되었다. 간신전은 일반열전의 일부 인물들을 편입하였다. 반신전을 반역전으로, 세가전을 구씨전으로 바꾸었다. 방기의 명목을 예술로 바꾸었다. 정조는 4년(1780) 10월 10일에 완성된 『어정송사전』 100권 40책을 간행하지 않고 비부에 두었다.

3) 정조는 8년(1784)에 『어정송사전』 100권본을 이덕무에게 수정을 맡겨 정조 15년(1791)에 완성하고 관학제생들에게 선사교대시켜 의례 1권, 목록 1권, 본기 8권, 지 47권, 세가 2권, 열전 91권의 총 150권 61책으로 완성하였다. 이 완성본이 현재 규장각에 남아 있는 奎1800의 『어정송사전』이다. 이덕무는 정조 8년(1784) 적성현감으로 근무하면서 검서관직을 겸하고, 정조의 뜻을 받아 『어정송사전』 100권본의 수정 작업에 깊이 관여하였다. 『어정송사전』 100권본의 의례를 개정하여 몇 가지 수정원칙과 수정내용을 밝혔다. 본기에서는 태조 본기에 실려 있는 두후의 사실을 추려내어 다시 후본기의 앞머리에 실었다. 지에서는 경적지를 예문지로 고쳤다. 세가에서는 재보세가와 오현전을 열전으로 옮겼다. 열전에서는 세가의 재보세가에 넣었던 인물들을 열전에 넣고, 오현전도 오현열전으로 열전의 제신 앞에 두었다. 공주전은 외척전 아래에 있던 것을 열전의 앞머리에 두어 세가의 종실전 다음에 두는 것의 개념으로 하였다. 유림전에 들어 있던 목수를 문원전의 유개 다음으로 옮겼고, 문원전에 들어 있던 섭적을 유림전으로 옮겼다. 문원전에 들어 있던 증공과 홍매를 제신전으로 옮겼다. 삭제되었던 탁행전을 복원하고, 효의전 끝에 붙였던 유정식, 소곡, 서적, 증숙경, 유영일을 탁행전으로 옮겼다. 유민전은 이덕무가 원 오입부의 『상해록』을 비롯하여 여러 서적에서 널리 채록하여 119명의 인물들을 보완하였다. 『어정송사전』 100권본에서 간신전에 보강되었던 정위 등 30여 인을 원래의 자리로 복원하고 송사에 들어 있던 사람만을 남겨두었다. 반역전은 송사를 따라 반신전으로 변경하였다. 외국전의 위에 있던 구씨전의 위치를 주삼신의 위로 변경하였다.

본 연구는 『송사전』 80권본, 『어정송사전』 100권본, 『어정송사전』 150권본의 편찬 및 체제에 대해 여러 기록들을 연계하여 분석 종합함으로써 서지학, 기록관리학 및 역사학 분야에서 매우 유의미한 결과들을 얻었다. 이 결과는 영·정조 시대의 문헌사를 연구하는 이들에게 기초적인 데이터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순애. “정조가 홍낙임에게 보낸 어찰에 나타난 어정서 편찬·간행 및 반사 내용과 관련 기록 연구,” 『서지학연구』 77(2019. 3). 103-124.
- 구순옥, 신창호. “제왕(帝王) 교육서로서 정사휘감(正史彙鑑)의 편찬과 구성상의 특징,” 『교육사상 연구』 30권 3호(2016). 27-50.
- 국립중앙도서관. 『정종대왕어필간첩』.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2013.
- 권정원. “이덕무 후기문학의 변모양상과 정조.” 『동양한문학연구』 제53권(2019). 5-37.
- 김덕수. “『정조어찰첩』을 통해서 본 정조의 서적 편찬 활동.” 『정조어찰첩: 『壬辰睿札』과 『己未御札』』.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3. 18-34.
- 김문식. “徐命膺의 생애와 규장각 활동.” 『한국학(구 정신문화연구)』 22권 2호(1999). 151-184.
- 金文植. “『宋史箋』에 나타난 李德懋의 역사인식.” 『동아시아문화연구』 33(1999). 29-51.
- 李成珪. “『宋史箋』의 編纂背景과 그 特色: 조선학인의 중국사편찬에 관한 연구.” 『진단학보』 49(1980). 85-114.
- 夫銀兒. “李德懋 文學論 研究.” 『역사와 실학』 17·18(2000). 469-512.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정조어찰첩: 『壬辰睿札』과 『己未御札』』.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3.
- 홍승태. “『宋史箋』 『儒林傳』의 宋儒系統論.” 『한국사학사학보』 30(2014). 253-283.
- 『Daum 백과』 <<https://100.daum.net/>> [접속일 2020.7.20.]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kyu.snu.ac.kr/>> [접속일 2020.7.20.]
- 『한국고전번역원』 <<http://db.itkc.or.kr>> [접속일 2020.7.20.]

• 국문참고자료의 영어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Bu, Eun-a. 2000. “A Study on Lee Deok-moo’s Literary Theory.” *The Journal of History and Practical Thought Studies*, 17·18: 469-512.
- Daum Encyclopedia. <<https://100.daum.net/>>. [cited 2020.7.20.]
- Hong, Seung-tae. 2014 “The Biographies of Confucian and Confucian genealogy of the Song dynasty in the Song-Sa-Jeon.” *The Korean Journal of History of Historiography*, 30: 253-283.
- Institute for the Translation of Korean Classics. <<http://db.itkc.or.kr>>. [cited 2020.7.20.]

- Jangseogak Archives of AKS. 2013. *Jeongjo's Eochalcheop: Imjim's letters and Gimi's letters*. Seongnam: AKS Press.
- Kang, Soon Ae. 2019. "A Study of Eojeongseo's Compilation, Publication, and Distribution as Described in Jeongjo's Letters to Hong Nak-im and of Related Records." *Journal of Studies in Bibliography*, 77: 103-124.
- Kim, Deok-soo. 2013. "Activities of Publishing Books through Jeongjo's letters." *Jeongjo's Eochalcheop: Imjim's letters and Gimi's letters* (pp. 18-34). Seongnam: AKS Press.
- Kim, Moon-sik. 1999. "Lee, Dok-mu's historical thought through analysis of the Songsajon." *Journal of East Asian Cultures*, 30: 29-51.
- Kim, Moon-sik. 1999. "The Life of Sŏ Myŏnggŭng and His Service in the Kyujang-gak Library." *Korean Studies*, 22(2): 151-184.
- Ku, Soon-ock, & Shin, Chang-ho. 2016. "A Compilation and Characteristic of Formation in Jeongsa Hwigam (正史彙鑑) as the Learning for the Ruler."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 Ideas*, 30(3): 27-50.
- Kwon, Jung-won. 2019. "The Changes of Literature in the Later Lee Deok-mu (李德懋) and the Influence of Jeongjo (正祖)." *Dongyang Studies in Korean Classics*, 53: 5-37.
-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http://kyu.snu.ac.kr/>>. [cited 2020.7.20.]
- Lee, Seong-gyu. 1980. "The Background of Songsageon compilation and its features." *THE CHIN-TAN HAKPO*, 49: 85-114.
- National Library of Korea. 2013. *Jeongjo's Letters Housed In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Seoul: National Library of Korea, Library Research Institute.

[부록] 『송사』의 발췌, 편집, 교정에 관한
『일성록』 영조 46년(1770) 1월 3일~8월 25일의 기록

『宋史』 구분	『日省錄』 영조 46년(1770) 1월 3일~8월 25일(지속기간)	세부내역
本紀	1월 3일(1일)	始抄宋史 本紀也
本紀	1월 4일~1월 10일(8일)	抄宋史 本紀也
本紀	1월 12일~1월 14일(3일)	抄宋史 本紀也
本紀 校正	3월 22일~3월 25일(4일)	校宋史本紀抄本
天文志, 五行志, 五行志, 地理志, 河渠志	1월 15일~1월 18일(4일) 1월 19일~1월 20일(2일) 1월 21일~1월 23일(3일) 1월 24일~1월 26일(3일) 1월 27일~1월 28일(2일)	抄宋史 天文志也 抄宋史 五行志也 抄宋史 五行志也 抄宋史 地理志也 抄宋史 河渠志也
禮志 吉禮, 禮志 嘉禮, 禮志 賓禮, 禮志 賓禮와 軍禮, 禮志 凶禮, 禮志 合抄, 禮志 校正	1월 29일~2월 2일(3일) 2월 3일(1일) 2월 4일(1일) 2월 5일(1일) 2월 6일(1일) 2월 7일(1일) 2월 9일~2월 10일(2일)	抄宋史 禮志吉禮也 抄宋史 禮志嘉禮也 抄宋史 禮志賓禮也 抄宋史 禮志賓禮軍禮也 抄宋史 禮志凶禮也 抄宋史 禮志合抄也 抄宋史 校禮志抄本也
樂志, 樂志 增刪, 樂志 編摩	2월 11일~2월 16일(6일) 2월 17일(1일) 2월 18일(1일)	抄宋史 樂志也 抄宋史 樂志增刪也 抄宋史 樂志編摩也
儀衛志, 輿服志, 選舉志, 職官志, 食貨志	2월 19일(1일), 2월 20일, 2월 22일(2일) 2월 24일~2월 25일(2일) 2월 26일~2월 29일(4일) 2월 30일~3월 3일(4일)	抄宋史 儀衛志也 抄宋史 輿服志也 抄宋史 選舉志也 抄宋史 職官志也 抄宋史 食貨志也
兵志, 兵志 編輯	3월 4일, 3월 6일, 3월 7일, 3월 9일(4일) 3월 10일(1일)	抄宋史 兵志也 抄宋史 編兵志抄本
刑法志, 藝文志	3월 11일(1일) 3월 12일~3월 13일(2일)	抄宋史 刑法志也 抄宋史 藝文志
志 校正	3월 26일~3월 30일(5일) 4월 1일~4월 29일(29일) 5월 1일~5월 5일(5일)	校宋史抄志
后妃傳, 宗室列傳, 公主列傳	3월 15일~3월 16일(2일) 3월 17일~3월 20일(4일) 3월 21일(1일)	抄宋史 后妃傳 抄宋史 宗室列傳 抄宋史 公主列傳
范質 等 10傳, 韓令坤 等 10傳, 折德辰 等 13傳, 郭崇 等 8傳, 吳廷祚 等 7傳,	5월 6일(1일) 5월 7일(1일) 5월 8일(1일) 5월 9일(1일) 5월 10일(1일)	抄宋史 范質等十傳 抄宋史 韓令坤等十傳 抄宋史 折德辰等十三傳 抄宋史 郭崇等八傳 抄宋史 吳廷祚等七傳

『宋史』 구분	『日省錄』 영조 46년(1770) 1월 3일~8월 25일(지속기간)	세부내역
張美 等 19傳, 李瓊 等 27傳, 張昭 等 10傳, 李昉 等 12傳, 張宏 等 13傳, 陶穀 等 23傳, 馬令琮 等 21傳, 李進卿 等 25傳, 劉福 等 27傳, 張鑑 等 20傳, 王繼忠 等 26傳, 呂端 等 6傳, 王欽若 等 5傳, 陳執中 等 9傳, 楊礪 等 15傳, 高瓊 等 25傳	5월 11일(1일) 5월 12일(1일) 5월 13일(1일) 5월 14일(1일) 5월 15일(1일) 5월 17일(1일) 5월 18일(1일) 5월 19일(1일) 5월 20일(1일) 5월 21일(1일) 5월 22일(1일) 5월 23일(1일) 5월 24일(1일) 5월 25일(1일) 5월 28일(1일) 5월 29일(1일)	抄宋史 張美等十九傳 抄宋史 李瓊等二十七傳 抄宋史 張昭等十傳 抄宋史 李昉等十二傳 抄宋史 張宏等十三傳 抄宋史 陶穀等二十三傳 抄宋史 馬令琮等二十一傳 抄宋史 李進卿等二十五傳 抄宋史 劉福等二十七傳 抄宋史 張鑑等二十傳 抄宋史 王繼忠等二十六傳 抄宋史 呂端等六傳 抄宋史 王欽若等五傳 抄宋史 陳執中等九傳 抄宋史 楊礪等十五傳 抄宋史 高瓊等二十五傳
田錫 等 14傳, 尹洙 等 16傳, 孔道輔 等 16傳, 狄棐 等 31傳, 邊肅 等 31傳, 張昱之 等 25傳, 楊億 等 22傳, 上官正 等 19傳, 李迪 等 10傳, 韓琦 等 7傳, 范仲淹 等 6傳, 包拯 6傳, 張方平 等 8傳, 蔡襄 等 16傳, 何郯 等 22傳, 石普 等 9傳, 景泰 等 19傳, 李清臣 等 20傳, 任顥 等 38傳, 滕元發 等 28傳, 徐禧 等 9傳, 司馬光 等 3傳, 蘇軾 等 2傳, 呂大防 等 7傳, 梁燾 等12傳, 孫覺 等 13傳, 진차승 등 28전, 傅楫 等24傳과 苗授 等 30傳	윤5월 1일(1일) 윤5월 2일(1일) 윤5월 3일(1일) 윤5월 4일(1일) 윤5월 5일(1일) 윤5월 6일(1일) 윤5월 7일(1일) 윤5월 8일(1일) 윤5월 9일(1일) 윤5월 10일(1일) 윤5월 11일(1일) 윤5월 12일(1일) 윤5월 13일(1일) 윤5월 14일(1일) 윤5월 15일(1일) 윤5월 16일(1일) 윤5월 17일(1일) 윤5월 19일(1일) 윤5월 20일(1일) 윤5월 21일(1일) 윤5월 22일(1일) 윤5월 23일(1일) 윤5월 24일(1일) 윤5월 25일(1일) 윤5월 26일(1일) 윤5월 27일(1일) 윤5월 28일(1일) 윤5월 29일(1일)	抄宋史 田錫等十四傳 抄宋史 尹洙等十六傳 抄宋史 孔道輔等十六傳傳 抄宋史 狄棐等三十一傳 抄宋史 邊肅等三十一傳 抄宋史 張昱之等二十五傳 抄宋史 楊億等二十二傳 抄宋史 上官正等十九傳 抄宋史 李迪等十傳 抄宋史 韓琦等七傳 抄宋史 范仲淹等六傳 抄宋史 包拯等六傳 抄宋史 張方平等八傳 抄宋史 蔡襄等十六傳 抄宋史 何郯等二十二傳 抄宋史 石普等九傳 抄宋史 景泰等十九傳 抄宋史 李清臣等二十傳 抄宋史 任顥等三十八傳 抄宋史 滕元發等二十八傳 抄宋史 徐禧等九傳 抄宋史 司馬光等三傳 抄宋史 蘇軾等二傳 抄宋史 呂大防等七傳 抄宋史 梁燾等十二傳 抄宋史 孫覺等十三傳 抄宋史 陳次升等二十八傳 抄宋史 傅楫等二十四傳 苗授等三十傳

『御定宋史箋』의 편찬 및 체재에 관한 연구

『宋史』 구분	『日省錄』 영조 46년(1770) 1월 3일~8월 25일(지속기간)	세부내역
唐恪 等 24傳, 沈銖 等 29傳, 劉拯 等 22傳, 李綱 1傳, 宗澤 等 3傳, 朱勝非 等 12傳, 韓世忠 等 2傳, 劉錡 等 7傳, 王德 等 13傳, 王友直 等 14傳, 朱倬 等 13傳, 張九成 等 10傳, 常同 等 16傳, 衛膚敏 等 15傳, 何鑄 等 18傳, 張燾 等 9傳, 陳康伯 等 14傳, 劉珙 等 14傳, 周執羔 等 15傳, 李衡 等 13傳, 趙汝愚 等 9傳, 胡紘 等 20傳, 徐誼 等 13傳, 鄭穀 等 14傳, 辛棄疾 等 12傳, 趙方 等 14傳, 李宗勉 等 9傳, 杜範 等 8傳	6월 1일(1일) 6월 2일(1일) 6월 3일(1일) 6월 4일(1일) 6월 5일(1일) 6월 7일(1일) 6월 9일(1일) 6월 10일(1일) 6월 11일(1일) 6월 12일(1일) 6월 13일(1일) 6월 14일(1일) 6월 15일(1일) 6월 16일(1일) 6월 17일(1일) 6월 18일(1일) 6월 19일(1일) 6월 20일(1일) 6월 21일(1일) 6월 22일(1일) 6월 23일(1일) 6월 24일(1일) 6월 25일(1일) 6월 26일(1일) 6월 27일(1일) 6월 28일(1일) 6월 29일(1일) 6월 30일(1일)	抄宋史 唐恪等二十四傳 抄宋史 沈銖等二十九傳 抄宋史 劉拯等二十二傳 抄宋史 李綱傳 抄宋史 宗澤等三傳 抄宋史 朱勝非等十二傳 抄宋史 韓世忠等二傳 抄宋史 劉錡等七傳 抄宋史 王德等十三傳 抄宋史 王友直等十四傳 抄宋史 朱倬等十三傳 抄宋史 張九成等十傳 抄宋史 常同等十六傳 抄宋史 衛膚敏等十五傳 抄宋史 何鑄等十八傳 抄宋史 張燾等九傳 抄宋史 陳康伯等十四傳 抄宋史 劉珙等十四傳 抄宋史 周執羔等十五傳 抄宋史 李衡等十三傳 抄宋史 趙汝愚等九傳 抄宋史 胡紘等二十傳 抄宋史 徐誼等十三傳 抄宋史 鄭穀等十四傳 抄宋史 辛棄疾等十二傳 抄宋史 趙方等十四傳 抄宋史 李宗勉等九傳 抄宋史 杜範等八傳
高定子 等 9傳, 湯璿 等 11傳, 趙汝談 等 13傳, 傅伯成 等 18傳, 喬行簡 等 12傳, 宣縉 等 30傳, 楊棟 等 20傳, 吳泳 等 20傳, 劉應龍 等 23傳, 周敦頤 等 15傳, 朱熹 等 8傳, 聶崇義 等 28傳, 邵伯溫 等 19傳, 范仲淹 等 6傳, 程迥 等 13傳, 宋白 等 17傳	7월 1일(1일) 7월 3일(1일) 7월 4일(1일) 7월 5일(1일) 7월 6일(1일) 7월 7일(1일) 7월 8일(1일) 7월 9일(1일) 7월 10일(1일) 7월 13일(1일) 7월 14일(1일) 7월 15일(1일) 7월 16일(1일) 7월 17일(1일) 7월 19일(1일) 7월 22일(1일)	抄宋史 高定子等九傳 抄宋史 湯璿等十一傳 抄宋史 趙汝談等十三傳 抄宋史 傅伯成等十八傳 抄宋史 喬行簡等十二傳 抄宋史 宣縉等三十傳 抄宋史 楊棟等二十傳 抄宋史 吳泳等二十傳 抄宋史 劉應龍等二十三傳 抄宋史 周敦頤等十五傳 抄宋史 朱熹等八傳 抄宋史 聶崇義等二十八傳 抄宋史 邵伯溫等十九傳 抄宋史 范仲淹等六傳 抄宋史 程迥等十三傳 抄宋史 宋白等十七傳

『宋史』 구분	『日省錄』 영조 46년(1770) 1월 3일~8월 25일(지속기간)	세부내역
陳充 等 13傳, 穆脩 等 23傳, [黃庭堅] 等 29傳, 康保蘭 等 27傳, 曾惠 等 32傳, 陳元桂 等 23傳과 高敏景 等 62傳	7월 23일(1일) 7월 24일(1일) 7월 25일(1일) 7월 26일(1일) 7월 27일(1일) 7월 29일(1일)	抄宋史 陳充等十三傳 抄宋史 穆脩等二十三傳 抄宋史 [黃庭堅等]二十九傳 抄宋史 康保蘭等二十七傳 抄宋史 曾惠等三十二傳 抄宋史 陳元桂等二十三傳 高敏景等六十二傳
趙時賞 等 28傳, 李璘 等 70傳, 王樵 等 31傳, 劉庭式 等 43傳, 趙修己 等 35傳, 杜審琦 等 20傳, 孟忠厚 等 22傳, 宦者 楊守珍 等 28傳, 宦者 邵成章 等 19傳, 姦臣 蔡確 等 8傳, 姦臣 黃潛善 等 7傳, 叛臣 張邦昌 等 6傳, 南唐李氏와 西蜀孟氏 2傳, 吳越錢氏와 南漢劉氏 2傳, 北漢劉氏 等 5傳, 周三臣 等 4傳, 高麗 等 3傳, 占城 等 18傳, 琉球國 等 6傳, 西南溪峒諸蠻 等 5傳, 撫水州 10傳	8월 1일(1일) 8월 2일(1일) 8월 3일(1일) 8월 4일(1일) 8월 5일(1일) 8월 6일(1일) 8월 7일(1일) 8월 8일(1일) 8월 11일(1일) 8월 12일(1일) 8월 13일(1일) 8월 16일(1일) 8월 17일(1일) 8월 18일(1일) 8월 19일(1일) 8월 20일(1일) 8월 21일(1일) 8월 22일(1일) 8월 23일(1일) 8월 24일(1일) 8월 25일(1일)	抄宋史 趙時賞等二十八傳 抄宋史 李璘等七十傳 抄宋史 王樵等三十一傳 抄宋史 劉庭式等四十三傳 抄宋史 趙修己等三十五傳 抄宋史 杜審琦等二十傳 抄宋史 孟忠厚等二十二傳 抄宋史 宦者楊守珍等二十八傳 抄宋史 宦者邵成章等十九傳 抄宋史 姦臣蔡確等八傳 抄宋史 姦臣黃潛善等七傳 抄宋史 叛臣張邦昌等六傳 抄宋史 南唐李氏 西蜀孟氏二傳 抄宋史 吳越錢氏 南漢劉氏二傳 抄宋史 北漢劉氏等五傳 抄宋史 周三臣等四傳 抄宋史 高麗等三傳 抄宋史 占城等十八傳 抄宋史 琉球國等六傳 抄宋史 西南溪峒諸蠻等五傳 抄宋史畢 撫水州十傳